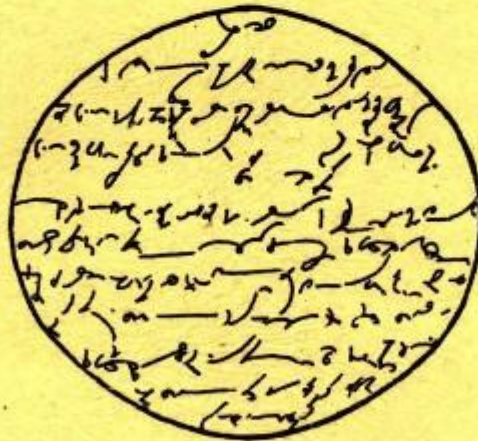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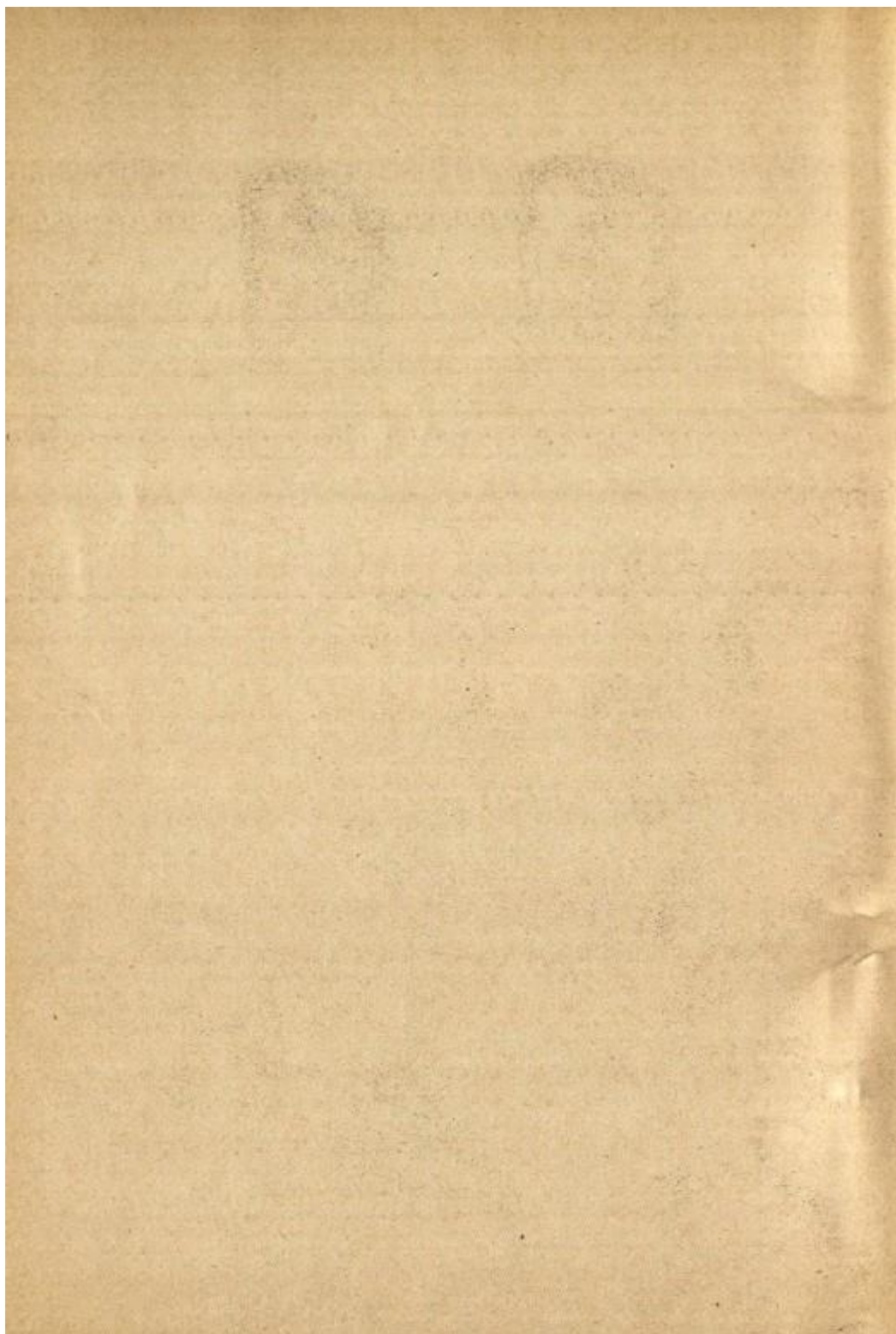
周圖

〈創刊号〉



国会速記士養成所同門会

法大韓速記協會





卷 頭 言

會長 盧 熙 南

迎日灣의 奇蹟과 함께 希望에찬 丙辰年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會員여러분과 그 家庭에 보람된 한해가 되기를 비는 마음입니다.

저희 養成所가 開校한지 벌써 8年이란 歲月이 흘렀으니 歲月은 흐르는 살같이 빠르다고 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 동안에 저희 同門들이 社會 各界各層에서 各者 自己의 맡은 일에 忠實히 그리고 모범적으로 活動하여 自己의 位置를 굳혀가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서로 매우 반갑고 즐거운 마음을 禁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國會가 汝矣島로 이전함에 따라 우리의 母校도 같이 옮겼으며 많은 同門들이 第2의 보금자리로 옮기는 등 1975年은 매우 분주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同門夫婦가 두 쌍이나 誕生하였다는 것은 1975年의 우리 同門會의 慶事中的 慶事라 하겠습니다.

우친을 위하고 同門相互間의 紐帶強化와 親睦圖謀를 위한 우리 同門會가 創立된지 어언 1年余... 名分과 業績을 내세우기엔 아직도 미흡한 初期인 것입니다. 創立이라는 아픈 産痛은 치루었지만 正常的인 軌道에 하루빨리 올려놓기 위해서는 會員 모두의 創立時에 못 지 않은 協助과 支援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것은 젊은 意氣만으로 이룩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艱辛속에서 그리고 어려운 많은 일을 안은 채 始作된 모임인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責任感과 義務感을 가지고 會員 모두가 同心하여 더욱 努力하여야만 되겠습니다.

하나의 일이 이룩되었을 때 물론 이루어진 일 그 價値도 중요하지

됨은 다만 運記人만에 限하는 努力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精神的 高揚을 克服하지 못 할며 韓國的 道義에서의 主觀工
商에 工人階級에 準하는 "쟁이"의 體念上 範疇에 머물고 말 것 임
니다. 就職안 되면 卽과는 當을 쌓고 生活에 급급할 때 珍瓏하게 반
짝이던 敎育의 觸點은 시들어지고 退化하는 바 끊임없이 研學과 琢磨
를 게을리 하지 않기란 바로 위에서 말한 稔熟과 精神的 高揚의 整頓
度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같은 職能分科에 從事하는 同好人끼리 共同的 康魂을 마련하고 따
같이 方面하는 問題意識들을 究진 浮提시키고 여럿의 머리를 짜 내어
意識의 흐름을 主流할 때 眞正한 自己發展과 向上이 摸索되어지고 先
輩와 社會는 精銳와 叱咤가 아닌 激勵과 後援이 따를 것은 明若觀火
할 것입니다. 高等敎育을 받드시 大學課程에서라 보고 就職해서도 總理
해서 大學을 다니는 사람은 組織社會의 成員으로서의 義務와 自然人으
로서의 能力의 限界사이에서 苦惱한다고 생각됩니다. 嚴格한 意味에서 韓
國的典章下에서가 아니라면 大學은 高校課程의 研鑽이요 發掘인 만큼
看板에 戀戀하는 浮識者보다는 內實있는 知性人을 이 社會와 國家는
希求할 것입니다.

運記士가 單純한 技能人이나 技能以上の 次元에서 自負를 가질 수
있느냐하는 問題는 師와 士의 뜻들이어 輝射되는가는 많은 對話와 一
목 一 步의 水를 발듯 啜啜하는 知的 空虛로 互窮하는 가운데서 自明
해지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耨成所라는 舊巢를 벗어나서 各者 各은 바 部署와 生業에 精
進하는 가운데서 서로의 다른 呼吸과 思想을 이 작은 會話의 脈通面에
스캐리.하자면 歲月과 함께 영글린 甘味의 水蜜桃가 열리리라고 囑咐할라
면서 여러분의 自重自愛를 비는 마음으로 가름하는 바입니다.

(丙辰 二月)



그저 좋지 않은가

梁源龍 (速記課編輯担当)

내가 速記를 배우게 된 것은 高3-1952年 光州의 美國公報院에서 있는 英語編譯大會에 參加했다가 같은 날 午後行事로 있었던 速記普及講習(세종식:金世鐘先生)이 인연이 돼 극히 우연한 이 인연으로 宿命的인 速記士가 되고 말았다.

요즘 젊은이들처럼 무슨 確固한 觀을 세우고 시작한게 아니고 처음 부러 엉성한 好奇心에서 부딪쳐 본 것이 시냇물로 適性에 맞았는지 60余名の 同輩中 오직 나 혼자만이(다른 두명은 後에 되었음) 그해 새로 完足한 地方敎會에 就業함으로써 19세의 紅顏少年이 돈을 벌게 됐으니 周圍 同輩들의 부러움이란 대단한 것이었다.

특히 1952年은 休戰되기까지 熾烈한 6.25戰爭이 계속되 거리 거리에선 檢問檢索이 심할 때인데 時事通信社의 速記士까지 兼하고 있던 나는 軍服에 press라는 완장을 들르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으니 그 모습은 가히 짐작되리라.

사실을 말하라면 이 때 이러지 말았어야 했다. (웃어 넘겨 달라) 여하튼 地方敎會라지만 速記士 品賞時代였으므로 市·道敎會에 市道敎育委員會 네군데에 通信社 일까지 했으므로 그 봉투는 빠른할 만큼 두 통했다. 때문에 옆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官公署의 係長 課長따위가 우습게만 보였던 게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이렇게 速記士가 되었다>

이야기를 약간 되돌려서 여기서 編輯者의 注文사항인 速記 바늘 때의 墜踏處에 대해 약간 言及하고 가야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울렸고 또 웃겼기 때문이다.

지금 國會速記士養成所나 東邦速記學院에서야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
 지만 그때만 해도 호랑이 담배 먹던 때였다. 610月코스의 110月에
 지나 基本文字 받침 略法이 끝나 갈 무렵, 이것도 지극히 우연한 기
 획에 우리를 가르치던 K先生(創案者 金性鍾先生의 首弟子)의 房에서
 조그마한 秘密手帖을 發見하고 깜짝 놀랐다. 거기에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과는 判異한 略法이 실려 있었다. 後에 만 일이지만 이 때
 세종先生은 普及用을 가르치고 있었고 이 首弟子는 세종法式이지만 S
 -speed 爲主의 私人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以後 세종法式을 배운
 사람중에 이 Speed用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한사람도 速記士가 되
 지 못했다.

이 手帖을 發見한 날 밤 우리는 다섯 사람의 決死隊를 만들어 K
 先生을 某處로 拉致, 협박공갈을 하다가 끝내는 哀訴로 나와 따르
 다섯 사람만 수업료를 매달 더 내기로 하고 그 秘密手帖에 있는 것
 을 배우기로 했다. 그러니까 60名中 55名은 어렵고 괴로운 速記를
 했고 약삭빠른 이 다섯 놈은 <글세 어다 금순아!>였다. 310月째 부
 터 實力은 判異했다. 尙舊 150字對 250字의 差異가 날 정도였다.

하라 못해 응기 그릇을 좁은 匠人도 그 기술을 쉽게 아무에게나
 信受하지 않는단다. 하물며 그 어수룩한 때에 최소가치가 있었던 速記
 術을 그냥 우습게 배우리라고 생각져 않았던 내 判斷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뜻에서도 우리 後輩님들은 福받은 世代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科學的으로 배번 데이콰에 의해서 有能하고 훌륭한 先生님들이 集中的
 으로 最新 最良의 것만 研究하여 가르쳐주니 말이다. 여기에 私人的인
 適性만 맞아 떨어지면 1年의 苦生에 月10萬원은 틀림없이 보장되니
 하늘아래 장땡이 아닌가?

—〈같이 웃고 싶은 지나간 일 一題〉—

板门店休战會議이 한창이던 무렵 거리 거리에선 軍警合同의 橫向檢索과 不審檢問이 嚴重하여 마음놓고 걸어다닐 수 없던 때였다. 當時 나는 S通信社가 信部速記士로 근무하고 있었음은 前述하였다.

元來 速記士는 速記해 둔 原稿를 最少限 6個月間 保管해 둔다. 翻文되어 간 內容에 까탈이 붙을때 原文과 對照하기 爲해서다. 이 速記原稿가 6個月이 넘은 것으로 내집에 상당히 쌓여 있었는데 C라는 내 친구가 (현재 서울법廷 在職中) 집에 놀러 왔다가 휴지를 하겠다고 무슨 原稿를 달라기에 한 문지 준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이튿날 K署로 부터 S通信社로 電話가 걸려와 倉猝 驚로 와 달려 가는 것이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나 하여튼 좋은 消息은 아닌 채 署에 달려가 왔더니 어제 그 친구 C가 兇犯이 되어 查察主任(現情報係長) 앞에 앉아 있었다. 들어가자 마자 兇兇한 查察主任은 무서운 얼굴로 따름 「이것이 무슨 指令書요!」 하면서 例의 C에게 速記原稿문지를 내놓았다.

그제야 나는 긴장을 풀고 속으로 웃을수 밖에 없었다. 즉 친구 C가 그 날 速記原稿문지를 들고 歸家途中 거리에서 警察官의 不審檢問을 받게 되었다 한다. 證明을 보고 난 순경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묻기에 C가 종이문지를 펼쳐 보여 주었더니 無條件 署까지 連行하며 「이 暗號를 풀어내라!」 「共匪에 連絡하는 指令이지!」 해서 무서운 取調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아무래 C가 그것은 내 친구가 쓴 速記라고 해도 速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당시의 이 순경에게는 우선 功名心만 이 앞서 徹夜取調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튿날 查察主任이 나오자 C는 나만 불러만 달라고 必死的으로 哀乞하게 되어 내가 불러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말을 받아 쓴 速記라고 해도 믿으려 들지 않았다. 暗號란

것이다. 하는 수 없이 通信社의 묵은 通信線을 갖다가 査察主仕 앞에
놓고 멀리 떨어져서 6/10月 이상이나 묵은 原稿을 들고 읽어 내려
가노라고 진땀을 뺐다.

이래서 C는 線上文字인 遠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無知한 순경때문
에 무고한 惡寒의 하룻밤을 지냈던 것이다. 이때 이후로 나는 어떤
경우든 遠記原文은 꼭 내 손으로 불태워 없애 버리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감히 아우님들에게 바램이 있나면〉—

사실은 先輩대점들 너무 잘 해주어 흠족하기 이를 데 없다. 그 발
달하고 심심한 美男 美女들이 에레베이터 속에서나 복도에서나 市內
거리에서나 어디서나 각뜻이 아는 체를 해 주니 정말 예누리 없이
외롭지 않아 마냥 좋다.

한 번은 6층 昇降機 앞에서 國舍 某局長님과 우연히 함께 서 있
게 되었다. 저 쪽에서 우리의 예쁜 遠記士 아가씨 두분이 이 쪽을
향해 오다가 이 못한 先輩를 보고 아주 情이 담긴 예쁜 인사를 해
주었으나 그 局長님에겐 인사를 외쳐 하지 못했다. 이 光景을 본 그
局長님은 좀 무안하셨는지 「요즘 遠記士들은 局長보다 先輩가 저 무서
운 모양이군!」

그러나 어찌 이것이 무섭고 안 무섭고의 문제이겠는가. 순수한 遠記
士들만의 人間關係인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뭐라고 고집을 수는
없지만 同-運命體라는 連帶意識, 또는 지금 이 차리에선 아직 꺾일 수
없지만 여하튼 어떤 自衛的인 刺戟感 이런 것들이 複合的으로 뭉쳐져
우리를 무섭게 團結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 後輩님들의 方向感覺이
이 정도다. 이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어떤 늙은 선배가 宿直을
하고 있는 것을 본 R後輩 「들어 가세요! 제가 대신 할래요!」 <이것
이 아무데서나 누구나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겠는가?

南쪽 땅 大屯山의 山行 길. 그 고장의 先輩. 그 힘찬 등산 꼭대기 까지 그 고장 土酒를 가져 와 우리 모두를 즐겁게 해 주신 일. 녹아 떨어진 선배를 업어내려 주신 일. 각종 運動경기에선 득점이 떨어 지도록 응원하신 일.....

꼭 대접을 받아서 맛이 아니다. 그 底辺을 흐르는 그 것이 그저 좋지 않은가. 오늘의 後輩가 來日의 先輩이고 보면 모두 그저 흐뭇하고 좋지 않은가. 요즘이야 느낀 일이지만 한 가지 슬픈 사실이 있다. 그 발랄하고 키얌션 아가씨들이 탐탁 점을 주어 놓고 結婚을 하여 떠나가 버린 사실이다. 女子의 終着歌를 向해 떠났으니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새삼 人生無常을 實感케 해 슬프다. 모두들 머리가 좋고 마음씨 착한 아가씨들이었으니 福받고 富貴를 누릴 것을 確信한다.

아우님 여러분!

지금까지 K先輩의 말처럼 實業의 도둑배 같은 녀두라를 끝까지 틀어 주어 이것 또한 그저 고마울 뿐이다. 좋은 삶은 이 길이 天職이 됐으니 여러분과의 人間關係는 이어져 갈 것이다. 설혹 직업을 바꾸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天職을 불사른 이 天職에서 얻어진 인연은 두고두고 가슴을 메울 것이리라.

가다 오다 부딪히면 어깨동무 해서 때뚫잔이라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여러분이 10代 때는 키얌기만 하더니 이젠 30을 바라보는 아우님들이 됐으니 그 늙름하고 장한 모습은 親近感을 더 주어 한 잔의 酒杯가 없을 수 없지 않은가.

그리고 自進해서 人生福徳房을 開設하고 있으니 잠가가고 싶고 시집가고 싶은 先輩님들 서슴치 마시고 相談해 달라. 여러분의 幸福을 찾는 데 열심히 뛰어 볼 생각이다.

(1976. 1. 31. 설날아침)

아침 송 가

이 영 월 ((1기))

내일이 오면
희야!
풀어혀친 가슴을 쭉-욱 내밀고
열손가락
얌달지 않는 한아름 뽀어
별빛 조각 같은
유란한 아침햇살을 맞아
찰짝 웃어보자.

내일이 오면
희야!
삼새 수북치 모아든
별강애기 파랑애기 노랑애기들을
참초로이 아슬 머금은
앞과 즐기와 뿌리들에게 들려주며
수줍은 미소를 찾아보자.



희야!
내일이 오면
우리 들이서만 같이
간직해둔
금박자를 꺼내다
온-종일
햇님이 찾아주는 곳에
정성스레 묻고
깊이랑 물대랑
자장가랑 불러주며
기도 드리며
영원한 삶을 약속하자

(總務處 勤務)



잃어버린 想



김 종철(6기)

여름밤. 가로등 속에 우글거리는 하루살이 마냥 그렇게 수많은 번민과 고뇌를 안고도 人向은 뛰어야만 하나? 來日을 위해 —

공허한 가슴 속에 매아리치는 초록의 想!

회한과 절망과 절망이 來日을 잉태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저주에 앞서 자비를 알아야만 되겠지.

사랑한다는 달콤한 속삭임보다 마취하지 않는다는 은근한 정분이 파사토와 좋다고 미련을 흘리던 자취마저 잃은 지 오래지만...

상처는 남아 그 진통이 그칠 때까지 애끓는 번민 속에 世上에서 가장 가엾은 人向은 '잊혀진 여자'라면서 망각을 가장하고 가증스런 웃음을 그려야만 할까?

사람을 잃고 눈물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보,

'피로'에 가슴 째어지도록 사색해 보지 않은 이는 젊음의 참된 힘을 알지 못하리라던 그 녀석.

지금이야 어렴풋이 그 뜻을 느낀다 하면 아직도 나를 어리다고 할 것인가?

하나의 가능성, 가느다란 소망마저 잃어버린 듯한 落葉의 자태는 많은 생각을 잉태하게 한다.

그것은 차라리 계절의 순환속에 새싹의 소망을 품고 있으니 머지않은 그때 고뇌도 번민도 새로운 모습으로 할 바꿈을 하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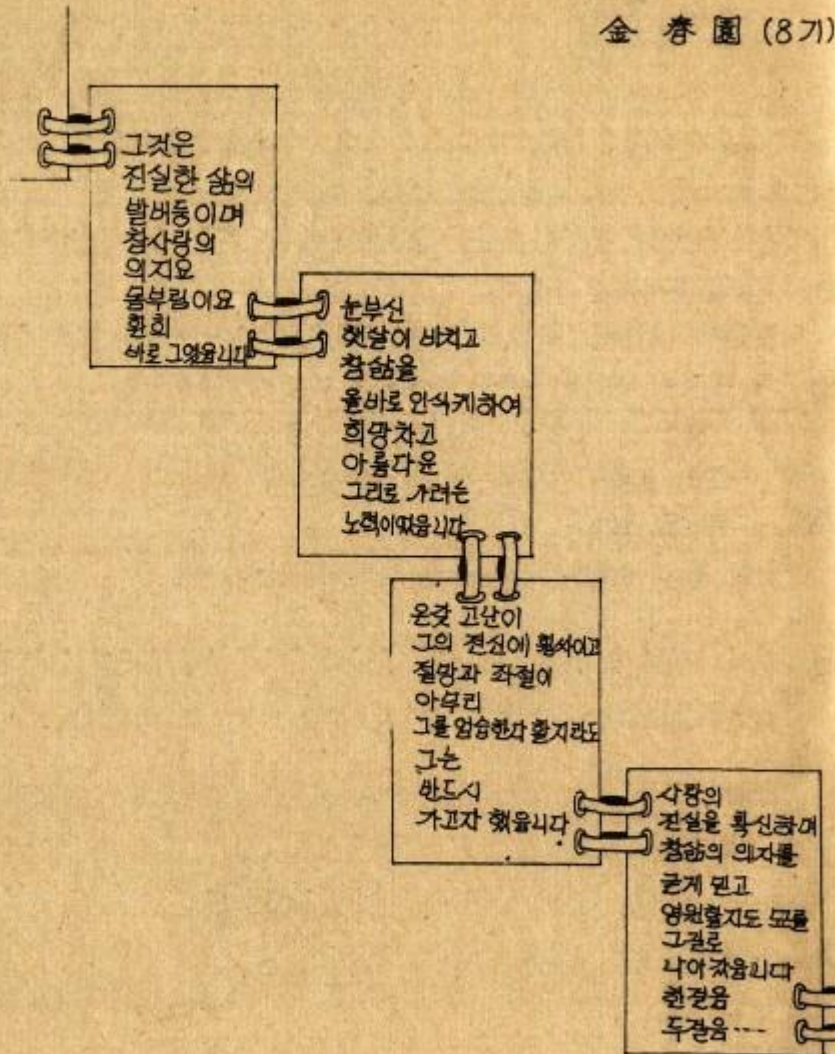
人向의 삶이 來日을 向한 발돋움이라면 사랑 또한 순간보다는 영원을 次善보다는 最善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먼 훗날 후회없는 미래의 소망이 있기에 이 밤도 느껴본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나 많은 뜻일 것이다라고

愛 路

金 春 園 (8기)





기다린다는 것

張貞義 (6기)

그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생각할수록 초조하고 괴로움뿐이다. 적막속에 묻혀있는 밤에나 찬란한 햇빛아래서나 외로운 가로등밑이 아니면 인적이 드문 호젓한 숲속에서 그 누구를 기다린 때의 마음들. 그럴 때면 흘러간 옛 추억들이 아련히 머리속을 잠식하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날을 생각해 한다. 교묘함만이 적막한 밤공기속을 흐르면 한층 더 지나갈 일들을 새롭게 한다. 머리속에 화면처럼 펼쳐졌다가 사라지는 그리운 얼굴들.... 고독과 쓸쓸함만이 적막한 밤공기속을 자주 연습해 온다. 사람은 저마다의 흘러간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슬픔과 기쁨과 그리고 괴로움...

인간은 살기 위해 발버둥친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기다림이란 존재할까? 저역노들이 지나가면 자연에게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만 우리에게 이 시간이 마지막이 아니 영원히...

쓸쓸한 창가에 인사없이 사라진 오후의 햇살처럼 잊어버려야만 했던 지난 날의 그리운 사람에게 지금은 오색 무지개의 아름다운 행복이 깃들기를...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지난 날의 아름다운 추억속에서 아름다웠던 그 날은 어제처럼. 내일은 오늘처럼 그렇게 추억만을 기리며 살아 가련다. 하지만 끝없는 머지는 이 시간에도 무거운 침묵만을 지닌 채 교묘한 적막만이 흐른다.

《座談會》

先生님들과의 對話

日時：1976. 1. 20. 10時

場所：國會速記士養成所

參席者：金敬萬(速記講師)

李潤和()

鄭宇鎔(前速記講師)

吳壽東(庶務)

司會：盧熙南(同門會長)

記錄：李承哲

○司會：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感謝합니다
올해로 우리 速記士養成所 同門會도 어느덧 두살이 되었습니다 저희
同門會에서는 그동안 最-級에서 教育者로서의 所任을 다하시는 여러
先生님들과 몇말씀 나누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養成所 學生들을 指導하시면서 느끼신 보람이라든가
또는 險路事項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鄭：내가 養成所를 떠난지도 사오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선성님들은
後輩들을 養成한다는 使命感을 가지고 犧牲的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은
前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있을
때 議會法式이라는 것을 創案을 해가지고 二期生때 부터 教育을 했습
니다마는 사실 그때는 學生들보다 先生님들이 速記文字를 더 모르면서

가르치자니 내시간이 돌아오면 은근히 겁이 나기도 했어요. 實務하는 法式과 가르치는 法式이 다르니까 事前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들어 가도 강의 도중에 계속해서 긴장을 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온연중 실수를 많이 하곤 했지요. 또한 養成所에 들어온 학생들이 전부 高卒以上の 水準이었기 때문에 強壓的으로 할 수 없었던 것도 하나의 隨路事項이었읍니다.

그다음에 물론 學則이 그러하니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養成所에 들어 왔다고 해서 그학생들이 모두 修了하는 것이 아니라 修了試驗에 合格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修了證이 무슨 資格證도 아닌이상 /耳聞 다봤다면 修了한 것은 事實인데 成績이 나빠서 修了證을 못준다 이런 것 역시 가르치는 先生의 입장에서는 좀 난처한 일이지요. 同門會에서 이런 것은 養成所側에 建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司會: 그러면 이번에는 李先生님께서 現職에 계시면서 여러가지 느끼신 것이 있을텐데요.

○李: 鄭先生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평소애 느끼고 있는 점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또한 鄭先生님께서 在任時 워낙 잘 指導를 하셨기 때문에 後任인 저로서는 前任者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남모르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한時期 議議하기 위해서는 40時向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例文을 뽑고 내판어는 議議를 열거했다고 하지만 역시 십여년동안이나 익혀온 技術을 一時에 바꾼다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점이었습니다.

다음에 보람이라면 우리 손으로 敎育한 後輩들이 꼭 이 國會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進出을 해서 그 나름 대로 성공하여 전설되게 사는 것을 볼 때에는 무척 흐뭇하게 느껴집니다

C金: 내가 談話를 가장 오래 했다고 해서 제일 나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도 議會法式에 완전히 못합니다 오래하다보시 오켜려 거리는 피가 나고 熱意가 부족한 감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공부할 때치고는 달라서 지금은 學生들을 指導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를 들면 班에 들어가서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농담을 해준다든가 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중 몇몇 사람은 그기분을 계속 연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 졌어요. 또한가지는 先輩들이 班에 들어오면 後輩들에게 이야기 해줄 수 있는 線을 넘어서 쉽게 希望을 상원할 수 있는 이야기까지 해줌으로서 學生들이 지루한 감을 갖고 자꾸 떨어져 나가게 되니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도 熱意도 안생기고 힘도 더 드는 것 같습니다.

보람이라면 지금 남들은 올 수 없는 어자리에 이렇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보람이 아니겠어요?

○뜻: 나는 間接的으로 특시 關係가 있을지 모르지만 事實은 내가 學生들의 生活指導를 담당 하자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學生들에게나 卒業한 여러분들에게나 그렇게 좋은 '어미지'는 심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學生들과의 生活에서 陸路事項이 있었다면 대부분의 우리 學友들은 자기의 親屬들이 大學에 다니고 있다는데 대한 어떤 劣等感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없애주는 것이 나의 가장 큰 陸路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람이라면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學生들을 보면 조그마한 보람을 느낍니다.

우스운 여기지만 또한가져 陸路事項은 청소문제 입니다 지금 圖書

를 보시는 盧會長도 청소시간만 되면 도망 가는데 선수였지만... (한동진)

○리숙: 네... 그러면 金先生님께서 初創期의 학생들과 지금 학생들과의 공부하는 자세를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金: 初創期 때는 앞에서 이야기 하면 다 들어줄 정도였어요. 물론 2期生 때는 우리가 速記文字를 잘 몰라서 墜路가 많았고, 다음에 3期生 때는 조금 나아져서 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成績面에서는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4期生 때 부터 7期生까지는 상당히 熱意를 다해도 잘 안되었어요. 내생각에는 每年 質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좀더 젊은 층에서 講師가 나와서 더욱 熱意를 가지고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숙: 그러면 李先生님께서는 議事堂 移轉이 따라 학생들의 學習 雰圍氣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李: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太平路에 있을 때보다는 交通이 좀 不便해 졌지요.

그러나 學習 雰圍氣는 오히려 많이 좋아 졌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다방 출입이 줄어들었고 공기도 맑아졌고 좀더 걷는 운동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오히려 먼저 보다는 學習 雰圍氣 뿐만 아니라 生活面에 있어서도 학생들에게는 더욱 좋아졌다고 생각 합니다.

○鄭: 나는 학생들의 용돈이 될 것 같아요. 太平路에 있을 때는 노는 시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장구정을 몰려간다는가 했지요. 물론 나는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심지어는 그전에 보면 쉬는 시간에 대포 한잔 마시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곤란하지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공부하는 데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리숙: 다음에는 우리 養成所가 '스파르타'式으로 敎育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령이 들어서 빨리 심증을 느끼고 낙오자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홍: 거기에 대해서 나는 正面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나한테 獨裁다 '맞소'다 그러는데 물론 '리크리에이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先進國과는 달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速記敎育하는데 있어서는 심한 차찍질을 해서 잡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손을 올려서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맞소'의 방법으로 지도를 해서 좋은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鄭: "안습은 경기처럼 경기는 연습처럼"이라는 말과 같이 速記敎育도 그와 똑같습니다. 너무 자유롭게 놔두면 先生님은 앞에서 방목을 하거나 말거나 쓰는 사람은 쓰고 안쓰는 사람은 안쓰는 이러한 것을 가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열심히 한 사람과 얇한 사람과는 현격한 차이가 나고 맙니다. 얼마나 빨리 쓰고 정확하게 쓰느냐가 速記의 생명이기 때문에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될텐데 너무나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速記敎育에는 逆效果가 날 것 같습니다.

○李: 다음에는 議會法式을 만드는데 參席하셨던 한 분으로서 鄭先生님께서 여러가지 재미있었던 일, 어려웠던 일,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세요.

○鄭: 한마디로 새로운 것을 創案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을 내가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速記課에 계시는 李東一 事務官님이나 金先生에게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자세할 것입니다. 이분들이 議會法式 創案過程에서 제일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이고 저는 그저 좋으면 좋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그런 정도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表彰狀도 걸려 있습니다마는 議會法式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나서 가르쳐 보지 않고서는 과연 얼마만큼 성과가 나올

것인지도 未知數였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20余年씩이나 成長해온 法式과는 겨우 현실도 안된 것남아이
로서 과연 競爭이 되겠느냐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했습니다. 한시간 教
育하기 위해서 40時間을 준비한다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午後
3時間 가르치기 위해서 事務室에 있는 時間이면 공부하는 것이 일이
였지요. 그래도 뜻대로 잘 안되었어요.

그다음에 議會法式의 長處는 同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고
하니까 나는 弱處를 이야기 하겠어요. 제일 시급한 것이 略法이 아니
라 略法을 좀더 개발했으면 議會法式이 더 '스피드'를 많이 낼 수 있
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승: 吳先生님께서는 항상 저희들과 同病同藥을 같이 하셨는데 우
리 養成所를 거쳐나간 先輩들한테 바라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한마디
해주시지요.

○吳: 특히 나는 여기 들어온 사람 하교의
접촉이 많으니까 그사람들한테 얘기 하고 싶
어요. 첫째는 矜持를 갖고 社會生活을 해나가
면서 불평보다는 좀더 個人的으로 무엇이 자기
에게 바람직한 方向이며 무엇이 自己發展을 꾀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며 살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두번째로는 우리 遠記課만의 特異한 點인 先後輩關係를 잘 살려서
禮儀에 어긋나지 않는 調和된 生活이 되기를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養成所의 補講授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금치 못하며 다만 後輩들을 위해서는 希望的인 激勵의 말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리승: 다음에는 遠記教育이 너무 단조롭다고 할까 또는 門戶가 너
무 좁다고 할까 이런 結果 공부 안하는 學生들의 対策이나 教育制度

의 補充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李: 나는 担任을 맡으면서 第1聲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高等學 於은 卒業한 段階에 까지 맺어온 모든 인연을 1年間만 끊어달라"고 했읍니다. 또한 「日曜日을 健康하게」라는 말을 했읍니다. 그것은 마음껏 뛰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 月曜日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좀더 유효하게 日曜日을 보내라는 것입니니다. 이러한 結果 나는 역시 큰 效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은 速記講師들 피차간어 協助가 이루어짐으로써 더욱 큰 效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鄭: 지금 日本만 해도 速記라는 技術을 가지고 「문제를 解決할 수 있읍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石油가 나온다면 解決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門戶의 打開이 상당히 막연 합니다.

또한 1年向의 教育期向이 사실은 速記教育에는 不可能한 것입니니다. 이것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좀더 富強해지면 初級大學 정도의 教育을 한다든지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얘기이고 또한 需要處도 없는터 유능한 速記士를 많이 輩出만 시킨다는 것도 또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司會: 그러면 吳先生님께서 外部의 同門들과의 連絡過程에서 보람이 라고할까 이런 것이 있으시다면...

○吳: 네 다른 職장에 있는 어느 분이 速記를 배웠다고 하여 舍護 場에 들어가서 速記를 한 결과 그 職場에서 크기 能力을 認定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람을 느꼈읍니다.

○司會: 그러면 곧으로 現職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同門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學生의 기분으로 勤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同門 들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李: 첫째 禮儀를 바르게 가져달라는 것입니니다. 特히 速記課에 勤務 하고 있는 同門들은 呼稱문제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간혹 너무 가볍게 지내다 보면 先輩님들을 同年輩의 친구로 착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주어진 일터에서 맡은 바 職分에 충실히 잘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험 땅는 데까지 여러분의 힘이 되어준 것을 약속하면서 同門會가 구성되어 가지고 앞으로 더욱 훌륭한 업적을 남겼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鄭: 내가 養成所에 있을 때에는 항상 너희가 遠征課에 들어왔다고 해서 오래 있을 생각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와서 여러분들 여계 거기에 대해서 더이상 말씀 드리기 보다는 점에도 얘기 했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社會속의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는지간에 주위 사람들로 부터 항상 稱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기를 바라며 會員은 相互間에 잘 協助해가지고 望해주기를 바라겠어요.

○吳: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라는 노래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일해 보고자 하는 의욕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同門會의 영원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李會: 오늘 여러 先生님들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先生님들의 그 熱意에 맞추어 우리 學生들의 피나는 努力이 따를 것이며 또한 先生님들의 고귀하신 사랑의 정신이 우리 同門會에 더욱 보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先生님들께서도 모두 所願成就하시길 빌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長時間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향 상

권 미애(8기)

차늘을 우리르는 바뿌이여!
찬가닥 꼭지는 가련하고
다만 리세는 공허일 뿐
은 —

해를 보내며 불리 깨진
그 단를

삼.

이제

은님의 활명한 익름속
파묻힌 생각에서 깨어나리니
꺾은 몸짓을 되도록 흔들기리며.

靑天을 쫓았던

날개 북인 새

고도를 높이는 그 래상도

수용소의 탈출을 기획하는

老母계산 핀르의

까찌러지는 삼신도

이제

은님의 활명한 익름속

북파된 바다에서 깨어나리니.

또, 나는
나에게로 돌이키는. 길에서
마지막 은열이 꽃이 지는 날
신기록 같은, 은은히 반짝이는, 빛은.

아, 아
그대
그대 끼름 은는가!
햇살 비치고 이슬 미금은
슬기롭고
까매로운
사랑,
銀露의 마차에 담겨.

다만
이제껏 목돈한
찍은 태양의 세계를
나는 안겨 가리다
플빛 파란 마음으로
하늘을 옥리르며
나는 가리다.



統一路의 추억



유 승 관(4기)

그 날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아침이었다.
 어제만 해도 높고 푸른 하늘에 구름 한점 노닐지 않던
 쾌청한 날씨였었는데, 하필이면 보름전부터 빨간
 등그라미로 예약(?)해 두었던 오늘의 동백하늘이 잔뜩
 찌프린 축축한 모습으로 나타날 줄이야.

기계적인 보름의 쳃바퀴 축에서 돌리고 찌들리는
 안타까운 젊음의 노쇠현상을 조금쯤은 늦춰보자는
 커다란 전지에서, 아니 그 보다는 좀더 현실적인
 면에서 아직은 특종의 경험이 없는 약하고 위험스러운
 동문회의 出港에 앞서 각 船員들에게 시작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자는 뜻에서, 그리도 여러날 든든한 머리와
 머리가 맞대어지고 無에서 有를 낳는 解産의 고통이
 따른 뒤에 마련된 오늘의 친선야유회가 아니었던가!

그래도 이날이 오기까지에는 어려운 내외정세(?)의
 흐름속에서 제법 「기신지」외출에 바름가는 몇차례의
 대민교섭정책을 펴가면서 낭만이 물씬 풍기는 適地
 物色을 위하여 金단장(김지원 前會長)을 위로 모시고
 수행원 5인과 함께 통일로 연변을 수차례 오르락거리지
 않았던가.

그간 낫설고 길설은 파주군의 S농장, J농장,
 K농장등을 땀들면서 飮事代위下문제를 놓고 수박한
 줄만 알았던 시골 아낙네들에게 설익은 경제이론을
 펼치다가 굵기야는 물가자수를 외파도로 내뱉는

그들에게 씩씩한 미소를 지으면서 돌아서던 일.
초간축예산을 강조하는 회장의 집행명령과 예산항목에
판공비도 없느냐는 우리자 준비위원의 이유있는 반항이
변갈아 고차되는 가운데 그나마 변동판공비인 큰 동전
서너 보을 더욱 꼭 쥐던 일.

그래도 육하원칙에 따라 제법 완벽한 계획을 짜놓고
제발 주빈되시는 회원님들의 洪水와 같은 참여만을
조바심하며 기원했더랬지만, 소풍주의 섭라는 이 涉外춤의
간절한 소망에 빗방울 만을 뿌리시며 무정하게 지나치시는
것인가.

못내 서운한 심정으로 지나간 며칠동안의 분주했던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1차 집결지인 광화문 교육회관 앞으로
나갔을 때가 9시쯤이었다. 거기에는 이미 10여명의
회원들이 나와있었다.

우리 A팀은 예정시각까지 서로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아직
못나온 회원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왼쪽에서
어느 女회원 한분이 활짝 웃으면서 내게로 다가왔다.
그회원은 폭발적인 웃음을 참지못하면서 가까이 오더니만
내 어깨를 반가운듯이 툭! 치는 것이 아닌가.

웃는 얼굴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좋은 법이지만 문제는
더큰 웃음으로 화답해 주어야 할 내가 상대방을 익히 알지
못하고 있는데에 적지않은 민망함이 있었다.

순간, 내머리를 스쳐가는 예리한 번뜩임!

“아! 이분이 3期초 선배님아구나.

그래, 맞아. 전에 지하실에서 땅이 본듯해....”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예?!”

그러자 이번에는 저쪽에서 몹시 민망한 표정이 감도는 것이었다.

결국 나중에 J회원에게 언지시 글있던 바 그분께서는 6기생으로서 내게는 2년이나 후배였다. 그런데 그분이 러질듯한 만면희색으로 내게 반가운 인사를 걸어왔던 것은 그 얼마전, 6기생들이 발간했던 養友會 會誌 <호박>에 나의 졸작 「속기유감」이라는 글이 실렸던 바,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하기도 웃으셨단다. 즉 그녀는 나의 文學(?)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알고 있었던 터였다.

어쨌거나 그녀가 반가와 하면서 인사해 준 것까지는 참으로 고마왔는데, 예의 그 어깨를 두드리면서 과감히 「대쉬」하던 그 커다란 「제스처」에 그만 놀란 나머지 패션배낭으로 오인하여 작듯이 뉘려 드렸던 이 열간스런 선배님의 체면이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다.

10시가 되자 최종 집결지인 연신내 시외버스 정류장에는 40명이 넘는 회원이 모였고 우리 同門 일행은 두대의 시외버스에 분승하여 예정시각인 11시에는 목적지인 공릉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정오에 가까와지자 아까부터 자꾸 쳐다보았던 하늘에서 십상지얇은 소리와 함께 빗방울이 간간히 비리기 시작했다. 순간, 오늘 야유회의 가장 귀한 「메뉴」인 포도(葡萄) 생각이 나서, 방금 中食교섭을 하고 돌아온 J회원과 함께 상림농장을 향해 큰 길가로 내달았다.

한참을 달리다가 마침 응능입구에서 「사이클링」으로 들어오던 K회원과 C회원을 만났고 우리는 급한 김에 두자전거를 빌려타고 30여리 떨어진 포도밭으로 힘차게 「페달」을 밟았다. 그런데 갑자기 「사이클」선수로 바뀐 이 사명감에

불란 丁회원은 이 연로한(?) 선배를 무시하고서 앞으로 앞으로 기록만을 更新하는 것이었는데, 이때 丁회원의 기록적인 力은 후에 회원들이 適時에 포도를 맛볼 수 있게 하는데 큰 공을 남길 수 있었다.

우리가 상림농장에 도착했을 때에 드디어 작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농장관리인과는 벌써 세번째의 만남이지라, "좋은 포도! 좋은 포도!"를 외치면서 포도밭 시렁 밑을 줄줄 따라 다녔고, 그 결과 좋은 품종은 두상자의 포도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겼다. 그것은 우리가 급한 김에 빌려 타고온 자전기가 「하이킴」이였기 때문에 뒤에 짐 싣는 받침이 없었던 것이었다. 상자를 새끼로 묶어서 손잡이에도 걸어보고 한손으로 들고 한손으로 「핸들」을 잡아도 보았으나 운전기술이 그 경지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결국 농장의 창고에다 자전기를 맡겨놓은 채 큰 걸로 나와서 여러차례 손을 흔든 끝에 겨우 시외버스를 탈 수 있었다.

점심시간이 좀 지난 뒤에서야 농장에 도착한 우리들은 막 식사를 끝내고 휴식을 갖는 회원들에게 싱싱한 계절의 진미를 바칠 수 있었는데, 알알이 들어 박힌 탐스러운 포도 송이를 들고 좋아하는 여러 회원들을 보자, 방금전까지 민생고타령을 연발하며 오던 丁회원은 시장기도 잊어 버린 듯 흘러 내리는 땀방울을 주먹으로 씻어내면서 빙그레 웃는 것이었다.

— 아름답도다! 좋은 일을 행하는 者의 손이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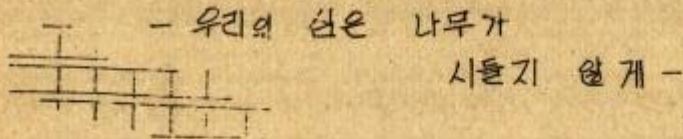
시간이 갈수록 빗방울이 점점 커지고 세차림에 우리 회원들은 사당의 자붕 아래 둥글게 모여앉아 즐거운 「게임」을 벌였는데, 며칠 전부터 사회를

부탁해 놓았던 A회원과 L회원의 재키있는 진행으로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후반부에 가서 진행을 맡았던 L회원이 사회하러
 도중 난데없이 나타난 guitar도둑(?)을 발견, 의협심에
 불타 그만 사회봉을 내던지고, 또다른 의협파 회원과 함께
 장장 10여분 동안 쫓고 쫓기는 산중 추격전을 벌였는데
 결국 도둑을 잡고 보니 이게 진짜 도둑이 아니고 市内 某
 高等學校 학생으로서 능내에서 guitar를 치고 놀다가
 관리인에게 압수당한 guitar를 몰래 들고 나오다가 들린
 것이었다. 그래서 관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는 광경을
 보고 진짜도둑인 줄 알고서 맹추격을 했다는 것인데, 비에
 젖은 산길을 달리고 달리다가 마침내 영겨블은 이 선의의
 피해자 盜선생(?)을 포함한 세 친구들은 너무나 지친 나머지
 응능 저수지를 내려다 보고 주저앉아 한동안 헛떡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땀과 비로 범벅이 되게 전후시점을 읊어
 하며 하소연하는 어린 후배를 가엾이 여겨 주결을 방조기를
 하고서 한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터덜터덜 돌아온 것이었다.
 그때 당시 이 一枝梅와도 같이 날래고 의협심 광던
 L회원이 이제 76년도 우리 동문회의 부회장이 된 것은
 동문회의 장래를 보아 실로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x x x x x

하루의 장막이 내려질 무렵,
 가을비에 까맣게 물먹은 포도(鋪道)위로 삼삼오오
 흩어지는 회원 각자의 가슴 속에는,
 — 어지랴은 날. 우리가 걷는 이 길은 民族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가쁨으로 달려갈 統一의
 길이 될 것 — 을 한마음으로 기원하였으리라
 (前 同門會 涉外. 국회 속기와 근무)

멍에를 벗으며



김치원 (1기)

봄철이 오면 누구나 나무 한그루쯤은 심어보는 경험을 한다. 나무는 삼는 일 보다는 잘 가꾸어 나감에 더 힘써야 한다는 상식을 우리는 갖고 있다.

동원회가 결성되고 일년남짓, 아직 뿌리에 힘을 얻기 못한 나무 같아서 즐기는 가늘고 가파리는 연하기만 하다.

장한 천재의 임원들은 겨우 심어진 묘목 하나를 키우라고 부름을 받은 심정이었다. 補 부회장이 입대를 하고 나서는 더욱 관팔을 잃은 격이었다. 여러분의 격려편달에 힘입음 없이 어찌 버틸 수 있었으랴 스스로 돌이켜 뭔가 더전을 좀 뒤아 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어린나무에 얼마나 밀거름이 되었을까? 관바람에 부대꼴까봐 움주리며 빨랐던 첫걸음을 내딛기 못한 아쉬움, 주춤거림……

잘못을 너그러이 보아주고 모자람을 채워준 벗들께 마음으로 부러의 고마움을 누를 길 없다. 아직 미진한 관구석이 있다라도 젊은 회원들이여! 관용을 바라고 싶다

×

×

매조부님 우리에게 이 모임은 하나의 실험이었다. 이 작은 일을 뛰어가면서, 힘과 성의가 부어지며 환목과 여제가 이루어 지느냐 아니면 모래알처럼 흩어짐을 보이느냐 싸움과 자조가 오가는 장난에 그치느냐

그리하여 별죽하기 전에 삼십여명의 동향들이 창립여부를 평가하려는
표결을 한 적이 있었다. 표결 결과는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큰 공동작업이 화목의 디딤들이 될 수도 있고 질시 반목의 씨앗
이 될 수도 있다. 오손도손 일손을 모을 때는 고됨도 모르고 신뢰의
섬들을 끌어낼 수 있다. 자기는 몸을 빼면서 몇사람에게만 책임을 덮
내 버릴 때 그 일은 무용하게 벌꿀에 채이는 돌이 된다. 인간성의
구겨진 구석을 들여다 보지게 할 뿐이다.

사람은 흔히 이해나 역적이 작용하는 곳에는 성원을 보내는 법이겠
지만 그런 류의 협조를 우리는 원치 않았던 바이다. 우리 회원들은
모두 이십대의 젊은이 들이다. 단 것이 있는 곳에 뛰어들다 쓰면 발
을 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가 제 바위에 맞추려 하며 털끝만큼의 이용가치를 기대했더라면
인간가…… 졸업생을 여섯회나 배출해 놓고도 동문회 없이 잘 지내왔거
니와 늦게 태어나는 아픔이 스며 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동안 우리는
칼날을 버려두었던 것이다.

어쨌든 뜻없는 백사람의 집합체보다 뜻있는 열사람이 모이면 더욱
보람된 길을 걷는다는 교훈을 배웠다

회원들은 물고기를 낚으며 울리는 자세로 은인자중하기를 마지 않았
다고 생각하며 그때문에 의욕적인 회원들로 부터 소극적이 아니냐는
나무람도 받았다. 동문회로 인해서 자극을 느끼는 사람이 없게 하자는
생각이었다

그것이 우리가 삼은 나무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얼마나 열거됨이
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내적이란 우리 회원을 외적이란 斜視의
눈초리를 말함이다. 우리의 苦肉의 殉情이 전해졌기를 바라고 싶다.

X

X

그러나 찬열의 필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미치를 따라 많은

말할 회원들의 노력으로 나무는 그 뿌리를 뺏어가고 있음을 본다. 몇몇 임원들의 수고로움, 여러 회원들이 멀리서 가까이서 보내준 호응에 대해서 일원이 여기서 말하지 않으려다.

동문회는 우리에게 희생이랄만한 시간 물권의 요구를 하지 않으며 체면을 무릅써 달라고 않는다. 모두의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것뿐이면 족하다.

제비가 살던 자리를 다시 찾듯 우린 모교와 후배들에게 무엇을 최소한 할 수 있는지, 이밖에 더 무엇을 추구하랴. 말할의 구실을 함으로써 보람을 찾을 뿐이다.

×

×

무릇 여성은 은달에게서 바보들 배우라 (노천명) 췌거니와 올해는 찬별가국만 물러설줄 알기와 襟度를 배우자.

작은 나(小我)를 내세워 보려는 어리석음을 조금씩만 속아내도록 하자. 그것은 큰나를 기우는 길

다행히도 다음 역까지 이 수레를 끌고 갈 마부들은 의욕과 박력에 넘쳐있는 분들이 아닌가. 여태까지 고비를 겪었던 임원들은 먼지도 묻혔고, 적당히 흠집도 생겼으며 또 약간은 피곤도 해졌다.

이제는 웃으며 약속할 때. 새 회장에게 미소와 따뜻한 한마디를 보내주자.

찌꺼기는 편내려 보내고 우리 사이에는 맑은 물만 흐르게 하자.

(전 동문회장)

無 題

장 리 진 (3기)

모래 날리듯
꿈은 날리는 바닷가 少年
石炭 캐는 鎬夫의
작한 아내는 해진 고무신을 짚고
들죽이 자그러진 부엌가에서
에너벨리를 읽는 少女
그리고 구름 구름들.....

바닷가 鎬夫의 눈먼 딸이나
南極의 진주목거리
혹은 所有하고 싶은 冊들
모래성은 쌓던 幼年은
波濤에 씻기어제 갔다.

簡笈驛
코스모스.....
아.
그 時點—

꽃잎은 紛落하고
오래 감금된 바다는 凍령이고
냉서마저
光明의 市場은 氷凍되고 있다.

오랫동안 비어버린 손아귀
외출은 凍나바퀴
卍床 앞에는 불투명 살색으로
외부를 차갑한
沈黙이 응크리기 어려울
얇은 銀빛 지느러미의 번쩍임
지느러미는 어깨에서
수없이 떨어져 나갔다
눈먼이가 보면 어둡고
늪은이가 보면 애처로운
6月아침 4팔손처럼
내 삶은
안으로 안으로만 기어오른다.

풍성한 大都市 한쪽에서

水銀火燭아래 沈沒되는 달무리
밀감이파리 꺾적 꺾적
머하린 파란 조류는 退色되고
오늘은
숙은 책갈피속에 4등성은 새겨지고
한 두 페이지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

햇살이 몇달동안 식어 있다가
제나름의 바다를 일깨웠다
바람은 가고
햇살의 두다리가 삼수리나무
근처로 옮겨졌다
텅빈 아침의 한쪽은 기운이다가
문득 日常의 빛꽃에 잠을 깬다.

빛. 常의 순간에 投影되는
遠景의 畫幅
— 저녁엔기. 달아 운도는 門지방
사랑방 木枕과 七旬의 아버지— .

가문은 또 그렇게
호두껍질 속으로 흐르고
그 속에 열리는 집문인들의
信仰과 鬪爭이 부딪는 소리
소리가 흐르는 소리
내가 어느 먼곳으로 가버리는
애절한 沈黙의 세아리
먼, 먼 너의窓가에
그 언젠가 約束에
떨리는 가슴이 아작은 가난한 채다.

너와 나.
우리.
南島の 한복판에서
애처로운 냇마디의 아포디 아포
경련은 일으키며
평온 멀어져 갔다
부너진 울타리 너머로 우리들의 喊聲

또다시 閉塞될 것인가
다들 못산다고 말하는 것은
다들 잘 살았던 때문은 아닌데
할일은 이렇거도 없는 것이고
이렇거도 할일은 없는 것이고 .

(국화 속기라 큰무)





斷 想

차 昌 基 (67)

夜光蟲의 피이스런 웃음이 생각난 바다. 허연 거거품을 물고 있다.
Eliot의 詩句를 생각해 본다.

「지루한 밤이 끝날 무렵

아침이 되기 前의 分明히지 않은 時向

끝없는 것이 되풀이되는 그 끝에서,

어린 時節 기억속의 바다를 - 그건 하나의 水平線이었다. 無限이었다.
이제는 한정된 肉身속의 自由로운 숨쉬는 靈魂이다. 아침이 와도 波濤
는 여전히 끊임없는 慰安이다.

아직도 바다에선 낭만(?)이란 것을 연상할 수 없다. 저지난 여름
東海에서 보았던 그런 감흥은 아니다. 오직 맘과 꾸준함을 要求하는
바다다. 딱 르인 바다엔 하늘이 있다. 遠大함을 느끼게 한다. 허지만
둘러 보아야 반경 10海里에 지나지 않음에도...

그릇이 격음을 통감한다.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人間이 그리우니.
섬지창을 쥔 海神 「포세이돈」의 포용력있는 미소가 아쉽다. 왜 당신은
바다로 향해 떠나야만 하는가요? 바다도 하나의 유혹이다.

진정 피끓는 모험의 영광은 '캠벌버스의 산타마리아' 등과 함께 수장
되었나?

농뿔 6月の 끈끈한 바람속에서 肉身의 熱氣를 내맡긴다. 불현 내바
다 내강산의 모습이 눈에 여린다. 정녕 떠나온 者만이 알 수 있는
感情의 흐름인가?

바다에 나오면 많은 글을 쓸 수 있을 줄 알았다. 허지만 바다의

모든 것들이 나를 沈黙시킨다. 아무리 외쳐도 한번 뒤를리며 쳐올리는
波濤 속에 삼켜진 양 空虛한 메아리일 뿐 孤島의 斷絶을 느끼게
한다.

陽地기 보인다. 하늘을 한 장의 수채화처럼 풀어져버린 잿빛! 흰눈
덮인 산줄기가 잿빛속에서 신양처럼 빛난다. 아름다움이란 하나의 떨림
인가?

北洋을 지나며 볼 수 있는 말레스카.

자칫 메말라 가는 水夫의 마음에 뜨거움을 열꺼운다.

내일쯤엔 보이지 않는 흰곰을 보았느냐 하겠지!

舟車 SAMUELS 船에서.



日記抄

제20/ 전루경철대.

한 진규 (6기)

75年 8月 13日 (수)

七月 七夕.

종일 내내 현기증에 애쓰다.

親愛한 동료 김 ○○군이 근무 중 총기사고로 가다. 아침 열때 사
십분에 보고를 듣다. 허탈감이 쫓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確固하게 찬다.

지금은 한 밤 열한시가 조금 지난 時向 서편에 붉으레한 반달이
늪엿이 지고 있다. 달지는 모양이 꼭 커를 지칭하는 것만 같은 생각
이 든다.

하늘이여! 이 검은 구름을 몰아가 다오

질석할 듯한 이 롱곡의 와침을 피땀히는 이 가슴의 질규를

하늘이여! 내게서 건우워 가다오.

8月的 한 낮에 울어대는 저 세는 날아가는 곳을 아는가 모르는가
피다만 꽃봉오리의 열어짐이 저렇게 처결할 줄이야

뼈를 짚는 고통과 부서운 천둥소리에 말없는 수모는 날로 더해가도
우리 어이없는 슬픔의 연속은 그칠 줄 몰랐다.

오, 피땀 장미의 꽃잎에 입맞추던 사랑하던 남의 모습은 검은 베
일에 가려져 이제는 볼 수 없는 당선을 슬퍼한다

그래도 鶴과 같은 고고함과 슬과 같은 기품

시냇물에 씻기는 차들같은 모습을 보이렵아

아, 이전 한 움큼 젓빛 부로로 환하는구나.

한 줄 솟아오르는 미래에 대한 손짓은 이제 그만
그 춤턴 겨울날 일어 들턴 몸을 매만지며 스스로 약속한 것도 이제
그만

무엇이 그에게 차가운 돌베게를 갖다 주었나

꿈이며, 말해다오

리질 듯한 동곡의 외침에...

사랑하턴 님의 목소리

이젠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끓는 열정의 도가니에서

싸늘한 당신의 시선

허지만 무심한 산새는 지저킨다.

푸른 6月的 어느 날

웃으며 미래를 펼치고 웃소미를 매만지턴 그 손

이제 당신은 검은 입술로 누워 있다.

고통의 순간을 잊은 채 말없이

눈물도 마르고 추억도 잊고

모든 게 하나 둘

눈 속에 묻히듯 사라져 간다.

먼 후턴 아주 먼 후턴

당신의 사랑을 그리며 우는 여인에게

내 담담히 그대를 말하리

당신의 추억을 못잊어 우는 여인에게

내 당신의 모습을 소상하게 얘기하리
비록 당신은 갔어도
그 미소 그 목소리
쉽게 잊히기는 어려우리라.

地下的 차디찬 돌 위에 누웠어도
손 술잔에 악마의 춤이 어지럽고
환영의 방문이 건디기 어려울 때
당신의 내방을 기대하노라.
오, 이제 당신은 갔구나
천상의 세계로 한 움큼의 부토를 남기고
당신을 부르며 떨어지는 눈물을 보며
오, 이제 당신은 갔구나
당신은 갔구나

25年 8月 15日 (금)

心身의 변뇌

삶의 意味는 本質的으로 어디에 있는 것인가 人間의 죽음은 숙명인
것은 이김없는 眞理이건마는 그 眞理를 이끄는 가치가 무엇으로 점
철되어야 하는가. 동료의 죽음을 보고서 그 헛된 비참에 얼마나 눈물
하였는지 모른다.

결국 한 움큼의 재로 化하는 뇌의 파노라마에서 무엇을 목격하여
실경하고 있는 것인가

아아, 너무나 無意味하고 헛된 죽음앞에 이 애들을 어쩔까. 억울한
개죽음의 결과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

오오 이 애들은 슬픔을 어찌할 것인가.

人間의 삶 — 또한 未來.

자정 가까와 별이 반짝이고 달도 밝은 하늘에 슬픔의 눈물이, 붉은
반달의 부푼 얼굴에 빛깔이 슬픈 모양을 하고 부슬 부슬히 내리다

벽계로 가는 길 한 편에 붉은 담홍의 잔나가 만발해 있었다.

햇되어 다한 짙은 영혼의 가는 길에 초님의 가호가 있으리라 어
리어 맺힌 영혼이 우리 모두들의 가슴에 살아남아 생동하리라.

聖父와 聖子와 聖神의 이름으로 간구하노니 그의 영혼이 가는 길에
초님의 은총이 함께 하리라.

자정은 훨씬 지나 검정애로 물려드는 구름위로 보름달은 나뭇배 떠
나듯 지나고 바람은 우주중리 열어서는 밤입니다. 모든 事物들이 고요
롭게 잠들어 있고 먼 곳에 뭇개들의 짖는 소리만이 간간 들려 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용히 숙면하고 있는 밤입니다. 이런 時向일수록 하늘의 별
을 생각하게 되고 可愛한 仙의 모습과 他界란 동로의 모습이 떠오르
는 것입니다. "時向과 永遠," 그리고 靈魂의 갈 곳을 찾는 것입니
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겸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밤도 나는 어느 경계나 생각을 끊고 자리에 들어가 할 지에
대하여 망설입니다.

(76년 1월 14일 한 밤에)

- 서오눔에서 -

◆ 토막소식 ◆

- 76. 2. 14 국회 속기사 양성소에서는 제 8회 졸업식을 거행.
75. 3월, 60명의 신입생이 합격되어 1년간의 수련을 마치고
이제 3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 것이다.
본 동문회원들은 이들의 졸업을 전심으로 축하하며 이들의
앞날에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신 천교(3기)

눈이 쏟아지던 날
정녕 떠나버린
아니,
발자국마저 들고 가버린...

혼자 종이 웃고
또 싫어 추위에 떨던 날
평야를 가르는
호남선 열차의 뽀뽀 목소리

변 못간다!
가고 싶어 비명을 지르는
그리나 못가는
그곳
그곳에...

부러워 멍청해진 일이며
눈이 발이랑사이에 쌓이면
기나긴 밤에
눈도 아파했다는 의미를 너는 모를 거다

나만이 알다가
내뱉대로
잊어 버리려 하는 끼죽은

나르는 눈이나 알아 줄까?

혹여 알까봐
뒤돌아 보지 않고서 마냥
발자욱마저 감추고 떠난 것인데
멀어지려 한 것인데 ...

잠안오는 밤마다 생각나는 일
잊으려, 생각지 않으려고
한껏 헐해 보아도
좀처럼 어려운 이 마음들 ...

그 추운 날
평야를 가르며
소리몰려 비명하던 기차
평야에 눈 툇인 간간 그 밤에
넌.

눈이 아팠다는 의미를 알 수 있을까?

어쩔 수 없는 까닭에
냉혹한 채찍을 가래
다시
흐트러진 이성을
젖어 모으려는 알뜰함
이 아픔 몇 곱이라도
감수하여 ...

그 때.

그 때는

내 너앞에 댕댕이 나타나라

지금 황량한 벌판에 서서

저러오는 가슴을 안고

웃음을 삼키지만

멀지 않은 훗날

인간미 흐르는 창된 나의 지혜담긴

쟁을 주리라

또.

발으리라

(뽕 전화국 곡)

임원진

<고문>

길기상

김전기

정원도

<회장>

노희남

<부회장>

이승철

<감사>

김치원

이현희

김채영

<총무>

한성구

<섭외>

홍순관

<재정>

손재욱

<간사>

- 1기
고용번
- 2기
오준근
- 3기
박정호
- 4기
유승관
- 5기
경대걸
- 6기
조정구
- 7기
박기만



隨 想 I

河 良 培 (1기)

— 社 會 에 對 하여 —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전문분야에서 세분화된 일을 함으로써 사회라는 거대한 組織體를 움직이는 조그만 부분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人間의 福利를 위해 만들어 낸 조직이나 制度 그 자체가 하나의 生命력을 갖고 人間을 拘束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좋은 위치에 영증을 느끼고 왜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는 懷疑를 갖게 된다. 그리고 自由라는 개념위에서 이루어진 個人主義는 나아보 남 도대체 나와 상관없는 것들이 무관심하게 만들고 文明의 찌꺼기인 소음과 공해는 人間의 정서를 파괴하여 非人間化를 재촉한다. 또 사람들은 달팽이가 제껍질을 못벗어나듯 자기의 성격 가치관 내지는 사고방식의 울타리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가 보다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非人間化에서 탈피하고 他人과의 사이에 쌓을 수밖에 없었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있을 것인가. 醫師가 환자를 진단하여 알맞는 처방을 하듯이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現象을 진단하고 그 改善策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있을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事物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이해성있는 눈으로 보고 상호 隔意없는 對話를 해야 한다. 결국에는 인간 자신에게 歸結될 이들 문제에 회피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자유스럽고 부드러운 對話를 나누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최소한의 動機를 이해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 해결을 모색할 때 人間關係에 새바람이 불고 우리 사회에는 밝은 내일이 있을 것이다.

— 試 驗 에 對 하여 —

살아간다는 것은 生存競爭의 사회를 헤엄쳐 나가는 것이라 하겠는데 이 생존경쟁의 한 전형적인 표현이 시험이다. 우리 사회에는 각종 入試에다가 취직시험 승진시험등 시험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이 시험만큼 우리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것은 없는데 入學試驗때마다 /차에 떨어지던 내친구 하나는 軍에 들어가는데 처음으로 /차에 합격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험에서 자신의 품드 략이 인정을 받고 進路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경쟁은 치열해지고 단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로 學文의 목적까지 변질되어 간다. 또 한편으로는 오랜동안 애써 배운 것을 한 장의 시험지위에서 평가하는데도 모순이 있을 수 있다. 과연 개개인의 지식정도가 정확하게 나타낼 것인가에 의심의 여지가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예를 들면 法의 습득을 익용하기 위해서 法을 배운다면) 시험성적보다 중요하다 할 敎養이나 가치관등 인격적인 면은 看過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떻게 되었든 시험을 치르면 喜悲가 교차되는 결과가 나오기 마련인데 너무 결과에 구애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勝者는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 자만하지 말 것이며 敗者는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挑戰을 다짐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목표에 한걸음 두걸음 다가갔는데에서 삶의 숭고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며 결국 人生의 마지막 순간에서 微笑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후회없이 살았다고 할 것이다

—世상에 대하여—

누군가 세상은 무대로 人間은 연극배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配役중에 이왕이면 멋진 역을 맡을 일이다. 그런데 한걸음 물러나서 萬葉鏡을 재미있게 들여다 보듯 眞實과 偽善이 뒤섞이고 간혹 戲劇이기까지 한 세 계 절난 맛에 신다는 이 세상을 보면 구경거리가 많다. 하다못해 거리를 지나는 사람을 자세히 보더라도 무심코 가는

사람에 풀이 죽어 다니는 사람 또는 내 세상인 듯 설치고 다니는
사람 정말 가지가지 모습들이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는 어제의 敵
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하며 비겁한 자나 강심장인 자는 오히려
잘 살았는데 마음약한 사람들은 신경쇠약에 걸리기 알맞다. 또 감히 神
의 이름을 빌려서 남의 재산을 등치는 新興敎主도 있고 일생동안
벌은 돈을 로영사업에 회사하는 고귀한 사람도 있다. 실로 무질서속의
질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人間은 저마다 삶의 명예를
지고 살아간다. 이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파란 색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보이고 빨간 색 안경을 쓰면 빨갱게
보이니 낙천적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아예
어떤 안경이고 쓰지 않을 것을 권하고 싶다. 그래서 세상을 있는 그
대로 보노라면 그런대로 살만하다는 것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 국회 속기의 근무 -



코스모스

박 명옥(8계)

조용한 微笑
결코 말할 수 없는 비밀로
막지막 하늘을 지켜야 한다.
바람결에 흩어져 조각난 구름처럼
놀진 들녘에서
누군가를 애라게 기다리며
외롭기 짝이난 너의 모습.

참다 못해 눈물을 여금은 少女처럼
이슬맺힌 잔디위에 슬픔을 잠재우며
清楚楚하고 수줍은 대모습을
소슬한 가을바람이 살짝 스쳐엔
나는 네 웃짓을 가엔혀 코끝으로
가져가 본다.

아무도 배반하지 않은
너의 그香氣가
종류의 모퉁이에서
서성거려야 하는 이유는
분명 외로움이 싫은 그風靄가 아니다

이 맑은 가을 하늘에
少女의 기도는 불타오르고
거리기 가벼운 하늘가에는

그래도
빠얏간 새기름이
이제 차늘한 바람이 쐬러오면
疎外된 새마음여
아쉬운 이별이 夕陽에 노을지듯 탄다

파리쳐진 너의 입술이
새이른 大地에 흠어지면
새연륜은 人間을 甦아가는
終點에 머물러야 한다.

◇
현대사화는 두뇌戰場이다. 그러나 질서와 파안플레이라는
루울을 지켜 퍼 까다로운 전투를 벌여야 려는 곳이다.

함人是 풀 戰포기 바람 轉점을 보고도 영상한다.
차찰은 그것들이 모여 성과안상을 이루기 때문이다.

<特別寄稿>

종아 팽야



김 우 영

국회에 들어온지 대머섯해, 명검에 비하면 하나의
의 점에 불과한 세월이지만 그러나 결코 짧은 날
들이라고 볼 수 만은 없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혹은 새로 인사한 사람과의 좌석에서 간혹
나의 직업은 정이가 아닌가 하는 물음을 받곤 한다.

그때마다 나는 내게서도 정이의 취취가 풍기는가 하는 의아로움을
갖곤 했다. 풀내기인 나도 새로 책정된 호봉에서 5호봉을 받은 정이
이고 보면 이제 조금은 월이들 때도 되었음직 한데 아직 마음은 머
먼 곳을 병황하고 있으니 나는 아무래도 개구쟁이의 범주를 벗어나진
못한 것 같다.

대형전 속기과의 N형으로부터 외부인이 보는 속기인에 대해서 몇가
서달리는 부의를 받았지만 명석한 두뇌와 인내, 그리고 노력을 경비한
속기인들에게 미약한 내가 주제넘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번제부터인지 나는 타의에 의한 속기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속기인들
과 지내는 시간이 많은 때문인 것 같다. 하긴 국회내에 근무하는 직
원까지도 나를 속기사로 오인하고 있는 분이 있을 정도이니까.

죄년 여름이던가, 통근차 안에서 썼다. 나와 상봉한 안면이 있는 B
씨 왈 『요즘은 떠 한가하겠습니까. 회기중엔 정신없이 바쁘지요』라고
말을 건네어 왔다. 나를 속기사로 간주하고 한 말이였다. 그분이 무안
해 힐개와 일단은 웃음으로 응수해 주었지만 대화가 좀더 진행된 후
에야 그는 내가 다른과에 근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가끔 이와 비슷한 일을 겪곤 했다. 이러한 일들이 아니더라도
나는 스스로를 준속기인으로 자처하고 싶을만큼 속기인들과 어울려 생

활하는 시간이 많았다.

나를 이끌어 주고 채찍질 해주는 분들, 그속엔 포근함이, 항상 파사
로히 감싸주는 포근함이 있어 좋았다. 이것이 나를 존속기인으로 만든
동기였다고 할까. 어쨌든 보낼 것 없는 내가 존속기인이라도 되었으니
먼 훗날에는 진짜 속기인이라도 될는지 알 수 없는. 원미 아니겠는가?

그동안 살아올린 속기인과 나의 우정은 힘으로 다정다감한 것이었다.
하영은 날을 속기인과 公的 또는 私的으로 접하여 오면서 나는 내
나름대로의 속기인 觀을 갖게 되었다.

서로를 아끼며 주고받은 情속에 내가 느낀 속기인은 한마디로 여인
처럼 섬세하였다. 거기에 끈질긴 정신력을 가미하고 있다. 본인가! 중
지와 자부심 또한 다의 추종을 불허한다. 또 있다. 치열한 경쟁의 대
열에 섰다가도 일단 물러나면 뒤에서 격려해주는 미덕, 그리고 직원
한사람 한사람의 신상에까지 파고드는 단합, 동료의 대외행사에 적극
참여해주는 성의, 「스포츠」를 통한 우의등등... 놀기를 좋아하는 내
게 힘 부러운 때가 많았다. 구태여 흠이라면 예민한 신경과 지기 생
거하는 승부욕을 들고 있다.

중공의 「핑퐁」 외교가 서방세계메로의 진출을 가능하게 했다면 나
의 별 볼 일 없는 탁구는 (별다섯개 잡고도 지는 분이 있으니 별
볼 일이 있는 탁구이기도 하다) 속기인과 나사이를 맺어준 가교였다
때문에 속기인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는지도 모
른다.

생각해보면 나는 유년기도 속기인들을 좋아하는 것 같다. 국회생활의
대부분을 속기인들 사이에서 보내고 싶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리라.

C선배, Y선배, N형등과는 많은 날들을 동고동락한 때문인지 어디에
서건 만나기만 하면 활약을 보는 것 처럼 그저 반갑기만 했다. 역시
情이런 만별수록 두터워 지는가 보다.

丁선배는 나와 이웃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같이 산 때문인지 형처럼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곤 한다.

Y형도 나와는 친근한 사이로 형제처럼 지내는 사람이다. 무언기도 없이 있는 사람, 인간다움에 살아보려는 그의 생활은 차라리 근엄하기조차 하다.

선후배가 용기충기 모여앉은 속기과에 가면 선침들은 가능한 한 주목이 들어 있어야 한다. 내가 느끼는 한 그렇다. 그것은 선배에 대한 대접이기도 하겠지만 나름대로 사회에 생소하기 때문이리라.

엇비슷한 연령층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네 사무실과는 다른 분위기, 아직 재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홍안의 미십대에서 무더 화부형 후보생과 후보생을 때어버린 화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 이러한 환경들로 인해 인어의 장벽도 부담없이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

나는 젊은 속기언을 통하여 무한한 가능성과 발달함을 느끼지만 한편 아쉬운 마음도 가진다.

그것은 왜일까?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엔 속기언이 어울릴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보다 넓은 세계로 방향을 잡지 않는 아쉬움도 물론 포함되어 있다. 속기를 완전 습득하게 되기까지의 노력과 인내과정이라면 다른 어떠한 것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이다. 속기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내 주위의 사람들이 국회의 속기시에 대하여 문의를 해오는 일이 많다. 속기사 양성소에 대해서도 많이들 알고 싶어한다. 그곳을 수료하면 어떠한 혜택이 오며 또한 바로 국회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질문의 초점이다.

이러한때 비속기인인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하여야 할 것인가. 솔한 경쟁자를 몰리치고 입학한 속기학교, 수료하기까지의 고원 과정 거기에서 추려지는 서너명의 합격자, 이 영광의 열줄만이 국회공무원으

로사의 신분이 주어진다. 나의 설명을 들으면 모두들 하나같이 놀라
와 찬다. 속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고……

×

×

이글을 쓰다보니 지난 일들이 뇌리에서 맴돈다.

합박년이 펄펄 쏟아지는 밤에 선배님들을 모시고 삼원짜리 셋다로
밤을 지새웠던 일, 삼십원 잃었지만 참 「스틸」은 있었다.

세번 른 판에 단종 두장이 클라들어와 왜 떡인가 싶어 오리치고
내리치고 입이 함박안하게 벌어졌는데 C선배의 광명에 놀리고 보니
벌어진 입이 당최 닫혀지지 않았던 일, 걸어다니기에도 지랄만큼 지랄
이 이글아글 타오르는 무더운 여름날, 태평로 의사당의 붉은 건물
찬커둥이에서 「팬티, 안 걸치고 탁구를 치던 일, 통금시간에 쫓기면서
도 바둑판 앞에 쪼그리고 앉아 생각나지도 않는 수를 열심히 읽는
일……

희박용한 새벽안개가 굵게 스민다. 벌써 동녘의 해가 밝아오는가!
서둘러 출근준비도 해야겠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꾸준히 전진하는 「쇼트 센터」의 앞날에 주
님의 기록하신 은총 함께 하시라.

〈國會 資 編 課 勤 務〉





축하합니다.

전저곤(명예회원)

M선생!

오랜만에야 소식전하게 되었습니다. 舍期中에는 바빠서 그렇다치고 非舍期中일 때에는 너무 한가해서 잊어버리기 일쑤였나 봅니다.

M선생!

아빠가 되셨다구요? "축하합니다. 제가 國會 速記士 試驗에 合格했을 때 들려주신 그 말을 이제는 들려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아니 되돌려 받을 때까지 맡겨두려는 심정인지도 모릅니다. 같이 速記를 배우느라고 교생도 많이 했고 國會의 좁은 문에 겨만이 合格됐을 땐 진정어기는 하셨지만 약간은 부러운 듯. 제게 축하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合格이 주는 의미는 컸겠습니다. 겨우 「未成年者 入場不可」의 간판을 무시치 살을 정도의 나이에 正裝을 하고서 이나라 爲政者들의 귀담이 팔리는 속물 드나들 때의 가슴속 뿌듯함을 어이 잊었습니까?

6주간의 훈련소 생활이었습니다만 동료들이 보내주던 편지의 결봉에 적혀진 「대한민국 국회」가 안겨주던 2次的 선물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훗날 장벽에 둘러싸인 中央情報部에 과전되어 仁善이필의 북한영화를 관람했을 때의 실례임이라든지, 같이 가셨던 主席님이 秘書로서 나는 秘書로 譏諷되어 경미헌병의 禮遇를 받은 일, 維新 明마전 「전치키타」로나마 國政監査次 檢察廳 서를주기에 과전되셨을 때 補助員로 나온 「라이프」에서 방금 써갖고 나온 原文을 워느라고 짹짹머뭇 일, 院政추들이 있을 때마다 신문에 보도되지 않은 생생한 狀況을 간격할 수 있었던 일 이

모두가 速記가 내게 안겨준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M선생! 같이 學院에서 첨자 課字를 따지고 있었을 때 나오고
바보같다고 놀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양식잡이에서 먼저 나오는 '스프
를 나중에 먹는 거겠지 하면서 미취봉은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습니
다. 그리고 東邦에서 혼자만기 승격되어 와돌이 신세가 되지 않겠는
냐고도 하셨지요 그러나 그것도 가우에 불과했습니다. 韓 회국의 알력이
란 옛말이 된 듯하고 대다수의 養成所 출신 동료들은 같은 젊은이들
로서의 호흡이 맞을 뿐입니다. 특히 내자성도 혼자였다는 압박감이
남과 어울려야겠다는 積極의 태도를 보여주셨고 그것이 몇몇의 과거
의 친구보다도 더 값진 친구를 사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
수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結束力이 도리어 養成所출신 동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한답니다.

이제 그들은 養成所 동문회를 發起하여 2부제를 맞이했나 봅니다.
출발의 시현이 간혹 있기도 보입니다. 이는 素의 모임이 힘찬 발걸음
을 내딛고 있습니다. 거침은 그들의 발걸음에 내걸음도 모아지고 있습
니다. 영예회원으로서 말입니다. 아작은 반걸음으로 큰걸음을 따라나
설 수 있을는지 어렵지가 못합니다. 지취자의 조각소리에 甍聲이 될
지도 모르지요.

M선생! 민전가 國會速記士 채용시험의 不合格 理由가 후攻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하신 적이 있기도 敗寇의 유으로만 여겨졌던 그
말의 뜻은 이제야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M선생은 그후 후攻을
상히 學校에 籍을 가지셨고 보람도 느낄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리
고 경흔하며 이제는 애기 아빠가 되었다니 정말 축하를 받으신 것
은 선생이었습니다. 速記士로서의 就職이 갈라놓은 合格. 不合格의 眞價
는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기도 모릅니다. 우선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는 速記職이 안겨주는 速記手는 制服의 階級이

그 어떤 限界 때문에 빛을 잃어가고 있고 外部로의 돌파구를 찾느라 本然의 임무가 소홀해질까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람이 물려 드리는 축하의 인사에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에게 응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아가겠다는 조짐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응부를 격려해주는 따뜻한 人間味가 가득찬 것입니다. 또다시 축하를 받아볼 뜻을 좌두는 작답에 열중해 왔을 겁니다. 필마쿠 M선생이 들려준 "축하합니다."를 고대하면서 마치었습니다.
(국회 속차과 근무)

《제2차 경기총회 소식》

○ 지난 12월 26일 오후 6시

여의도 의사당 속기사양성소에서 열린 제2차 경기총회는 42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한햇동안에 벌여왔던 사업보고 및 재정보고, 감사보고를 하였고, 이어서 16현도에 본 동문회를 이끌어 나갈 제2대 임원진 선출이 있었다.

○ 화기에예한 분위기 속에서 1시간에 걸친 경기총회가 끝나고 곧 이어서 新·舊 동문회장 주최로 성대한 '관습선'이 국회 구세역당에서 베풀어 졌다.

이자리에서는 회원들의 최근동경, 또한 최근 맺어진 동문 Couple의 소개 동문회의 컨트롤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건지할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이자리에는 군복무중에 있는 송교성(6기)회원을 비롯해서 많은 6기생 회원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모범적인 민주회원의 책임을 다 한 바 있었다.

앙 케 이 트

〈 設 問 〉

1. 출궁의 기회를 드린다면
2. 몸부림치도록 괴로움 떠는
- 3.今年の 개월이라면
4. 안마당에서 石油가 나온다면
5. 愛人과 結婚對象者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6. 同門會에 대한 高見은

— 이 영 렬 (1) —

1. 돌림없이 우람한 아들놈 하나 살겠는디.
2. 南山 電波塔 꼭대기로.
3. 관과산 백록담에 들런치고 지과산 천왕봉에 오줌누고 관려수도 관북관에서 論介과 한번 안아보았으면
4. 출궁구고 얻은 아들 溺死할까 걱정이야.
5. 근관한데...
6. 外柔內剛 · 內實

— 김 치 웅 (1) —

1. 경매에 붙이겠다.

2. 三水甲山
3. 마음의 和平
4. 매스름 응포증
5. 愛人 = 消費성향 높은者
結婚對象者 = 貯蓄성향 높은者
6. ?

— 오 준 근 (2) —

1. 得見
2. 기차여행
3. 일찍 일어나기
매달 관권석 찜리기
4. 모두에게 均分할까 말까
5. No Comment
6. 年 2回 정기모임을 가졌으면.

— 홍 순 관 (2) —

1. 마시자 한잔의 술!
2. 무작정 견고 싶어.
3. 그림같은 집을 짓고.
4. 이거야 정말
5. 다 그런거지 뭐.
6. 쟁, 하고 해들날 돌아오겠지.

— 김 복 동 (2) —

1. 진정제를 사먹는 자 (복권 1등은 땀 흘려서)
2. 화장실에 간다.
3. 자그마한 언덕이나 마천루가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4. 가루 '버너'로 쓰고 자손에게 家室로 물려준다.
5. 愛人은 結婚對象일 수 있으나 結婚對象가 꼭 愛人일 수는 없다.
6. 유력한 名譽會員의 確充 시험

— 한 상 구 (3) —

1. 茶房에 우선 들어간다.
2. 포장마차집 5차 승례
3. UN事務總長이 될자.
4. 星期日에게 燈油 欸바가지 영 기고 싶다.
5. 愛人 - 인젠간 떠나야 할 사람. 結婚對象 - 영천의 떠나선 안될 사람.
6. 參考意識의 高취를 위한 具體的 方案搜索

— 김 선 옥 (3) —

1. 이부자의부려 개어다겟조.

2. 旅行 나는 이없는 聖소관 어항으로.
3. 밥치기 근한한레요.
4. 담장 세수는 어떻게 해요.
5. 글세요.
6. 參考意識

— 전 계 곤 (명예) —

1. Color 꿈 → 주력복권
黑白 꿈 → 신문의 Puzzle 꿈다.
2. 文庫 稅 (글씨) ...
3. 노력의 댓가만.
4. 첫마당엔 우락잡 額이 있다는 걸 모르나보지.
5. 처음 만나 이경쟁 (Date 상대자)
계속 만나 줄거워 (애인)
너무 만나 괴로워 (결혼대장)
6. 차분한 前途를 ...

— 이 패 로 (4) —

1. 복권 6장을 산다.
2. 목욕탕에 간다.
3. 사랑본부 提議와 심사명경대설치 (진짜·가짜 구별하려면)
4. 나을까 겁난다.
5. 愛人 - 物事이고 값지나
결혼 - 所有權의 取得이며 幸福

6. 법정記者에 대한 門戶開放

— 김 상 기 (4) —

1. 공을 film에 남겨볼까
2. 世上 다 그런거라고
3. 現狀에 充實
4. 石油王 '루펠러'로 改名.
5. 이걸 묻는 저의가 뭐요?
6. ?

— 유 승 관 (4) —

1. 용꿈이 간가지 꿈이 되지않도록 분투노력.
2. 여배장에서 나와 필장 바닷가로.
3. 精神的 奮進追求.
4. 화속질 주인이 잠잠 흉비의 활과고 활태나.
5. 나의 진정한 친구는 반드시 나의 애인이며, 나의 애인이 반드시 나의 결혼대상자는 아니나, 나의 결혼대상자는 반드시 나의 진정한 친구이어야 한다 (yaphist)
6. 小我를 버리고 現實생활하는 民主會員이 되자.

— 조 정 구 (6) —

1. 복권 / 장만 산다 (이차피 / 등 은 한장밖에 없는데니까)
2. 담우리

3. 國會議物 사서 양로원으로.

4. 세락비 청소비 소방비... 아쿠
5. ?
6. 뿌리가 든든치 못해 흔들리고, 장가지는 쳐내야...

— 홍 기 표 (6) —

1. 세수하고 → 밥먹고 → 출근
2. 짬파고 무덤 속으로
3. 수줍은 忠愛나 음...
4. 이사할 걱정
5. 이쁘면 모두 愛人, 기증 나온 걸로 結婚하지 뭐!
6. 活動을 더욱 활발키

— 김 학 순 (6) —

1. 뽕곰도 아적 못겔어요.
2. To my hope, but...
3. 77년도로 무사히 걸어갈 수 있으면 합니다.
4. 당나파서 걱정이지요.
5. 뭐가 이렇게 까다롭지? 다 그런거지 뭘 물어요.
6. 저 높은 곳을 向하여. 좀려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

同門會沿革

○ 1974. 12. 14. 18:00

太平路 國會 第2別館 速記士養成所에서 45名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創立總會 開催.

會則通過에 이어 會長에 金致元, 副會長에 趙永昌·李賢熙 會員을 各各 選出.

○ 1975. 9. 5.

任員會設을 열어 야유회를 갖기 위한 現地 잡수반 構成 派遣.

○ 1975. 9. 14.

45名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公릉에서 심황회에 야유회 임시.

○ 1975. 12. 26. 18:00

여의도 新翠 國會設事堂 速記士養成所에서 會員 34名이 參席한 가운데 第2次 定期總會 開催. 事業·財政·監査報告에 이어 會長에 盧熙南, 副會長에 李承哲·金彩榮 會員을 各各 選出.

○ 1975. 12. 30.

任員會設을 開催코 總務에 韓相九, 渉外에 洪淳寬, 財政에 孫在王 會員을 各各 選任.

○ 1976. 1. 6.

任員會設을 開催코 各期別 幹事 및 顧問 推戴, 會報·會誌 發行을 設決.

○ 1976. 1. 7.

回報 / 号 發行 (103部 發送)

○ 1976. 1. 16.

任員會設 開催코 5월 月分 會費를 1月에 一時 賦出키로 하고 新入會員 (8期主)의 入會 願書를 받기로 함. 또한 修丁式에 記念品 頒送키로 함.

○ 1976. 1. 20. 10:00

速記士養成所에서 本 會誌에 掲載할 座談會 實施 (金敬萬·李潤和·鄭宇鎔·吳壽榮 先生님 參席)



會 則

< 1974年 12月 14日 制定 >

제 1 장 總 則

제 1 조 : (명칭) 본회는 國會議士養成所同門會라 칭한다.

제 2 조 : (목적) 본회는 會員 相互間의 親睦을 도모하며 母校發展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 2 장 會 員

제 3 조 : (종류) 본회는 正會員 및 名譽會員으로 構成된다.

제 4 조 : (자격) 1. 正會員은 本校를 履修한 者로 한다.

2. 名譽會員은 本校의 現職 敎職員과 또는 母校發展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로서 任員會가 推戴한 者로 한다.

제 5 조 : (권리와 의무)

1. 正會員은 議決權과 任員의 選舉權 및 被選舉權을 가지며 會費 및 기타 負擔金의 納付와 會則遵守의 義務를 진다.

2. 名譽會員은 各種行事に 參事할 權利를 가진다.

제 3 장 任 員

제 6 조 : (종류) 본회에 會長 1名 · 副會長 2名 · 監査 2名 · 總務 助取 · 渉外 기타 필요한 部를 관장할 幹事 10名 内外 등의 任員을 둔다.

제 7 조 : (선임) 會長 · 副會長 · 監査 및 各 幹事は 總會에서 選出한다.

제 8 조 : (임기) 任員의 任期는 1年으로 決되 重任할 수 있다.

제 9 조 : (직무)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總括한다.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에 그 職務를 代理한다.

3. 監査는 各担当部層의 事務를 整理하고 任員會의 任員으로서 本會의 重要事項을 決定한다.

제 10 조: (임원회) 1. 任員會는 會長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단 재적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會長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2. 任員會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贊成으로서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가. 會運營에 관한 細則事項.

나. 會費의 支拂 및 名譽회원에 관한 事項.

다. 入會費 및 會費에 관한 事項.

라. 기타 重要사항.

제 11 조: (고문) 本會는 任員會의 推戴에 의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4 장 總 會

제 12 조: (총회) 總會는 定期總會 및 臨時總會로 하여 定期總會는 每年 1회 臨時總會는 會員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나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소집한다.

제 13 조: (정족수) 總會는 會員 30名 이상의 출석으로서 召集되며 出席 會員 과반수로서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

가. 會則의 改訂.

나. 予算 및 決算의 승인.

다. 任員의 選任.

라. 기타 任員會에서 附設한 重要사항.

제 5 장 財 政

제 14 조: (재정) 本會의 財政는 會費· 會費補助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15 조: (회계연도)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定期總會 開會부터 차기 定期總會 日까지로 한다.

제 16조: (보고) 監査는 會計年度의 財政을 監査하여 이를 定期報告에
報告한다.

附 則

이 附則은 1974年 12月 14日 부터 施行한다.

會 員 名 單

〈 1 기 〉

고 광 변	국회사무처	속기과
김 처 권	.	.
박 대 성	.	.
최 성 주	.	.
한 병 고	.	.
좌 양 배	.	.
윤 우 최	.	.
이 영 열	국무회의실	
구 관 모	조발청	
이 건 식	문화공보부	
황 우 인	중요청문동 7번지 반박출판부	
홍 재 승	신세계 백화점	판공과
정 계 영	구 순 자	강 천 선
김 용 수	김 계 경	조 동 호
이 일 금	이 상 호	신 언 화
이 환 범	이 영 자	이 규 현
이 용 민	이 우 향	한 광 명
지 장 선	합 춘 수	

〈 2 기 〉

김 부 동	국회사무처	속기과
오 준 구	.	.
홍 순 환	.	.
노 희 남	.	.
이 현 최	.	.

고 석 광	720-71 제 2607부대	33 공과
송 해 경	동원주제국면회의	관장실
김 명 식	경북 김천시	문두동 175.
구 순 화	한국은행	외자과
김 영 채	공화원	업무주속회사
최 종 키	한강여자	공학교
이 전 순	농협중앙회	연구실
정 하 선	공과 (재)	
홍 기 관	경기도	소청분과 교사
유 의 상	화창산업	주주회사
양 순 희	동대문구	묵동 공화APT 2843
김 복 래	중요청문동	시범APT 452
이 유 경	김 기 영	이 호 선
서 키 직	김 미 경	김 경 관
유 명 선	임 원 식	황 규 현
김 정 애	김 경 자	오 세 인
김 태 연	김 길 수	

〈 3 기 〉

이 세 철	국회사무처	속기과
한 상 구	.	.
김 경 관	.	.
박 정 로	.	.
단 희 영	.	.
차 광 순	.	.
김 선 옥	.	.

김채영 국회사무처 속기과
 장희진 .
 김경희 .
 박순필 500 광주우체국 수서함 200
 조영창 ⁷¹³⁻⁶⁷ 제 9276부대 10 Co WP
 신천보 분천 전화국
 임명심 의정부시 호원동 226, 화상보화원
 이순애 ¹³⁰⁻⁰¹ 도봉구 방학동 185-12, 38/2
 나석관 ¹⁵⁰⁻⁰² 영등포구 신길동 단거리 4-66
 김영희 ¹²⁰ 경부 포항지 역동등 가학문선로 78-301
 김광섭 순천지4머림 출무과 13-7844
 이준무 남거좌골 화영병원 32-7261
 김수근 이창구 이영구
 고구남 최정희 김환호
 마혜영 박창화 이영숙
 김영호 김종룡 오근희
 신진숙 김창섭 노천용
 김경천

< 4 기 >

이승철 국회사무처 속기과
 유승분 .
 최애숙 .
 김은구 .
 김은숙 .
 이영애 .
 김상기 .

김동수 서대문구 서부서클4제국 수서함 3
 차낙호 ⁷⁰⁰⁻⁷⁷ 1253부대 죽령대대 2공과 RBC 170기
 이정숙 서대문구 사립아중 현원 권무계
 김성자 용산구 용국상사
 이희로 국회사무처 의과과
 관성희 경희심 김경수
 복문천 김택주 유명애
 이구심 김성희 윤수로
 안진석 조은진 서순복
 김정애 이정규 남영희
 이보람 권오환 홍문숙

< 5 기 >

정재길 국회사무처 속기과
 이미희 .
 권영찬 ⁷¹⁷⁻⁰⁹ 제 6277부대 무선공과
 김금화 도봉구 황계동 493-19, 6/3 (박영재)
 우종애 공군구 이화동 28-15, 5/4
 이승근 ⁷¹³⁻⁶² 제 6756부대 교수부 1공과
 이순구 ⁷²⁰⁻³¹ 제 8032부대 수위과
 장두순 ⁷¹³⁻⁰⁵ 제 8008부대 수권부본부
 안영미 ⁶¹⁰⁻¹² 경남 마산시 화곡동 829
 이돈석 부산시 해안대리교 사무과
 송필로 성북구 정릉1동 16-294, 12/3
 정래천 용산구 서계동 267-22, 28/2
 김종혁 ⁷²⁰⁻³⁶ 제 7528부대 8공과
 이근부 박옥경 김성규

조권심 최창 김기순
 최정숙 성석희 문우근
 이용준 박왕규 박정희
 김팔명 문병선 오금택
 정대천 강부용 윤호선
 심재성 이선희 이한구
 홍승선 조영희 백정미
 박순동 홍복화 송봉근
 민영락

< 6 기 >

손재욱 국회사무처 육기과
 조정구 .
 김관희 .
 김확순 .
 김종철 .
 홍기표 .
 이인복 ¹³⁰관악구 선림 2동 95-42
 신재권 ¹³¹⁻⁰¹동대문구 면복동 산 13-26
 변수환 ¹²⁰서대문구 홍제2동 44, 17/3
 황영순 ¹⁵⁰⁻⁰³관악구 선림1동 84-26
 권영연 ¹⁵⁰⁻⁰²영등포구 신림동 단지 17-17
 윤혜림 ¹²⁰서대문구 홍제동 홍제1면 APT 1-51
 배옥진 ¹³⁰⁻⁰²경기도 양주시 복정리 133(김정수)
 김커순 ¹³²성북구 정릉동 29-10
 박혜순 ¹⁵⁰⁻⁰³관악구 선림2동 153, 3/10
 고영환 ¹¹관악구 후사3동 86-6

송고심 ³¹⁹⁻⁰¹계 8321부대 7중대 본부
 안순희 ¹³¹동대문구 이문1동 120-25
 최달녀 ¹³²성북구 삼전1가 11-1
 박정기 ⁷¹³⁻⁵¹계 6937부대 10중대
 최수중 ¹³²도봉구 상계 4동 161, 22/6
 김창균 ⁷¹⁶⁻⁰⁸계 1967부대 3모대
 오세화 ¹³⁰중앙대관 승진2차도 여자가수사
 김환숙 ¹⁵¹관악구 선림동 251-2B, 8/7
 강성진 ¹⁵⁷⁻⁰⁴영등포구 오류동 산 43-6, 15/8
 권영복 ⁶⁰¹부산전구 추장동 376, (김관만)
 이창순 ¹³²도봉구 수유동 543-45
 박원철 ¹⁴⁰용산구 한강로1가 283-1
 장정호 ⁷⁶⁰⁻³²계 9856부대 경음곡로 RD-D-9
 장정의 ¹⁵⁰⁻⁰²영등포구 흑목동 367-151
 정인범 ¹³³⁻⁰¹성동구 권동동 423-86, 34/4
 신경자 ¹²⁰서대문구 흥문2동 23-23, 22/3
 박종희 ¹⁵⁷관악구 부림 4동 570-15, 8/2
 한진규 ¹²⁰⁻⁰²서대문구 감천동 산 131-1, 201다
 김구철 ⁷¹³⁻⁵²계 2630부대 1중대
 김재화 ⁷¹⁷⁻⁰⁸계 8638부대 2중대 352대
 박봉서 ¹³³성동구 현호3가 1344, 25/4
 박용탁 ¹⁴⁰용산구 서부아파트 4동 APT 마 344
 박홍-1 ¹⁵⁰관북구 전주시 신복동 22번 343, 95/36
 박희병 ⁷⁶³⁻⁰¹광안3동2차대 광안전차정비차대
 송인섭 ³⁷¹⁻⁰²관북구 관남동 마도면 가림리 5번
 엄복진 ¹²⁰서대문구 권자동 7-66

이근우 ¹²²도봉구 미아동 6층 151-38, 1/2
 이두실 ¹²²⁻²¹도봉구 팔문동 460-65, 5/10
 이상근 ¹²¹마포구 도화1동 5층 11번
 이상려 ¹²⁰⁻⁶⁵서대문구 전한외동 421-21
 이인철 ¹³³성동구 삼광삼익동 124-23, 18/1
 이명숙 유성준 김계담
 홍옥표 신경자 박중만
 임영순 유혜선 노관옥

< 7 기 >

김광복 ¹⁰⁰⁻⁷⁴경기도 파주군 남산읍 선유1리 982
 김전숙 ¹²¹동대문구 갈집리 2동 81-31
 박지영 ¹⁵¹관악구 봉천2동 449-22
 최명훈 궁구 동저동 19-59
 이희자 ¹²²⁻⁰¹도봉구 삼관동 423-44 2번(여과사협회)
 조창건 ¹⁵¹관악구 불현3동 1-676
 최승철 ¹³⁰⁻⁰¹동대문구 연북3동 443-29
 표선안 ¹¹⁰종로구 서적동 321-2
 이주성 ¹³¹동대문구 정선동 23-249
 이정숙 ¹⁵⁰영등포구 선길동 269-60
 노라희 ¹³³⁻⁰¹성동구 천호동 242-5
 유선로 ¹³²도봉구 미아3동 509-443.
 박기만 ¹²¹마포구 열복동 93-1, 7/6
 박종삼 ¹⁴⁰동성구 용산동 2가 1, 1038
 고정남 ¹³²성북구 정릉동 399-14
 이형근 ¹³⁹성동구 행당동 319-395
 최경옥 ¹³¹동대문구 회계동 317-59

심찰권 ¹³⁹성동구 구덕동 125-25
 김명려 ¹³⁰관악구 은암1동 182-166
 조선자 ¹⁵¹관악구 삼도동 111 4/14
 김용무 ¹⁷⁰수원시 새류2동 819-122
 서영수 ¹³¹동대문구 아문동 324-21
 이의걸 ¹³⁰⁻⁰¹동대문구 연북4동 395-23
 유건천 ¹³³성동구 협암동 304-38
 유성수 최길구 전종호
 신현숙 최호성 유병희
 이봉려 강신춘 이병덕
 권혁 파범준 김문기

< 8 기 >

강수현 용산구 서부아문동 212-18
 김명수 도봉구 미아4동 54-53, 1/1
 김미애 서대문구 응암동 243-444
 김미원 고양군 선로동 저축2리 496-1
 김주성 도봉구 삼관1동 328, 23/2
 김주익 동대문구 삼광동 129-61, 36/4
 김진리 관악구 불현동 7-333
 김춘천 용산구 관정로2가 225-6
 김혜석 성북구 동소문동 7가 28-28
 박경석 영등포구 선도림동 1032-9, 9/4
 박병욱 마포구 대흥동 47, 22/1
 박미환 서대문구 용계동 315, 4/2
 박영수 단양시 비산동 542
 박영희 마포구 대흥동 47, 22/1

박종범 상주군 죽도면 마곡리 271
 서영희 서대문구 중암동 243-445
 오광웅 영등포구 신도림동 106-85
 권희익 도봉구 번동 460-44, 22/3
 이기배 성동구 청상3동 328, 7/4
 시광필 도봉구 번동 460-44, 33/3
 이연희 영등포구 신도림동 837
 이삼호 서대문구 녹번동 53-36
 이혜자 마포구 연남동 370-21
 전구호 영등포구 개봉동 119-3
 전돈수 63-4674, 64-2257
 정력근 마포구 신원동 127-28
 정재영 중구 만리동 2가 199-130
 차재영 성동구 근계동 93-40, 59/6
 황희 성동구 옥수동 24-8, 3/2
 이희승 영등포구 노유동 81-13, 18/4
 문은국 관악구 선림5동 808-17, 24/2
 김화자 조업일 김정희
 김경희 박옥희 임명덕
 최봉숙
 <명예회원>
 김창진 국회사무처 속기과
 정재근

경명순 국회사무처 속기과
 이경숙
 ※ 주소가 누락 되었거나 변경
 된 회원은 동문회로 연락 바람
 47) 0011 ~ 9 교황 2371 ~ 2376.
 0111 ~ 9

기별 진출 분포표

업종 \ 기별	1	2	3	4	5	6	7
공무원	4	5	4	6	4	6	1
사기업체	1	1	4	2	4	4	5
국영기업체			1				
상업	1				2		
학생	1	1	1	1	3	3	
국회속기사	7	6	12	7	3	6	1
직업군인				1			
은행원		1					
사회사업및종교계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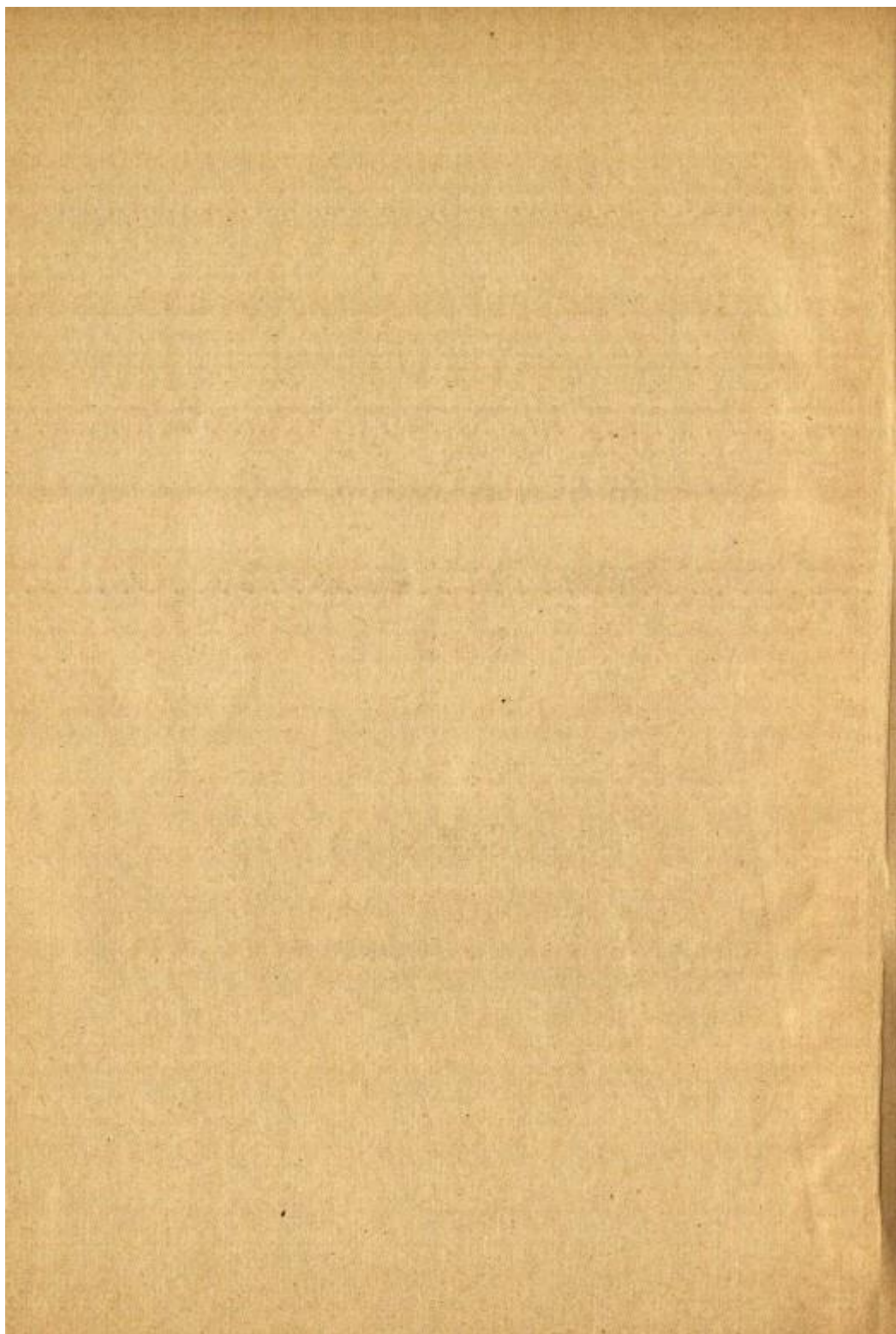
◇ 編輯 後 記 ◇

○ 농민이들의 곤궁, 헛소리의 市場, 그러나 박력은 만정.
커운 애가를 쓴 양산부의 불안과 出産의 고통. 그리고는
10년간에 설사연난 사람의 험속한 일들과 같은 화열. 아무
래도 이것을 고마우신 회원 여러분들의 각고의 결정이기에
더욱 그러한 것 같오.

설문지 인쇄 250매 회수 18매 이거야 정말 ... (철)

○ 沙工이 많으면 세가 산으로 간다지만 세는 滿船인데 沙工이
차나도 안라니 이 또한 갈팡질팡 難航을 거듭할 밖에 ...
새꽃겨 手篋 숨겨 발취의 거리를 부여받은 여러 會友께 간
사려오. (洪)

○ 8기 졸업과 때를 맞추려는 안간힘에 인쇄비 부족으로 갈
팡질팡. 환경의 책을 만들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예전
엔 미처 ... 비록하나야 즐겁게 받아 보시길.
이거회에 우리 會門들의 여러가지 숨은 재능을 발굴했고
특히 聖여회원 K의 많은 수고에 감사 드리며 또한 여러
선생님과 선배님들의 지도편달에 우선 인사 드린다.
이거회에 이음도 차-드사나 필경사로 전향할까 고려중 (韓)



周 員 <創刊號>

1976年 2月 13日 發行

發行人 盧 熙 南

編輯人 洪 淳 寬

國會速記士養成所同門會

址 意特別市永登浦區汝矣島洞/番地

TEL (47) 0011 (區) 2371-6
0111

